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July 2014 vol.112

이달의 이슈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와 그 배경
김광석
수도권 가계부채 분포와 특징
김진성

생생리포트

서울시장년창업센터
박소영
인포그래픽스
서울 맞벌이 부부 현황은?
서울경제분석센터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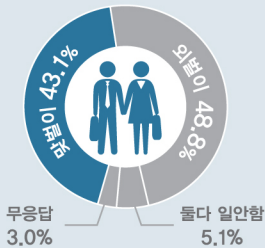
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부록
통계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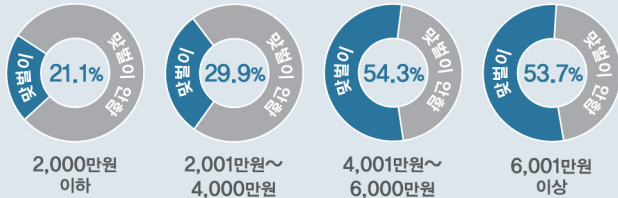
서울의 맞벌이 부부 현황은?

서울 맞벌이 부부 비중은 전체 가구의 43.1%이며, 연소득 6,001만원 이상인 가구부터 생활 수준에 대한 체감이 '중'

서울 맞벌이 가구 비중



연가구소득별 맞벌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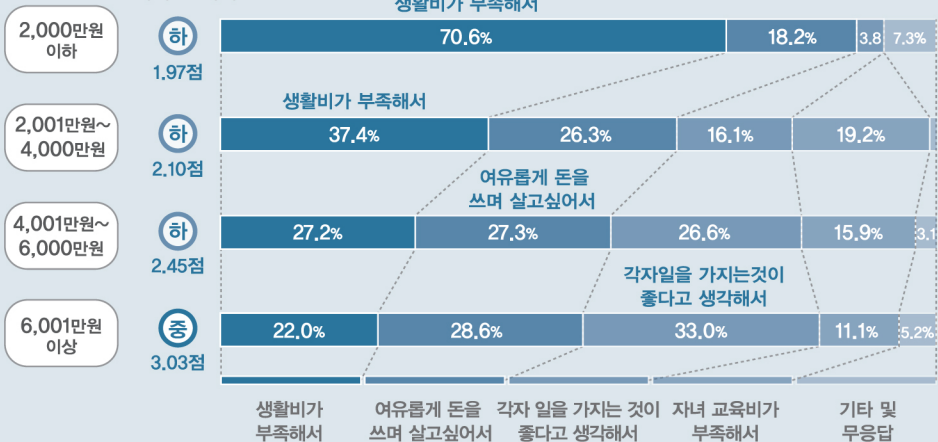


연가구소득

체감 생활수준

1점(하)~5점(상)

맞벌이를 하는 이유



- 이달의 이슈** 3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와 그 배경**
김광석(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12 **수도권 가계부채 분포와 특징**
김진성(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생생리포트** 27 **서울시장년창업센터**
박소영(서울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책임)
- 인포그래픽스** 43 **서울 맞벌이 부부 현황은?**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 경제동향** 49 **요 약**
51 **생 산**
53 **소 비**
54 **고 용**
57 **물 가**
58 **부동산**
60 **금 융**
68 **수출입**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이소은(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와 그 배경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gskim@hri.co.kr

1.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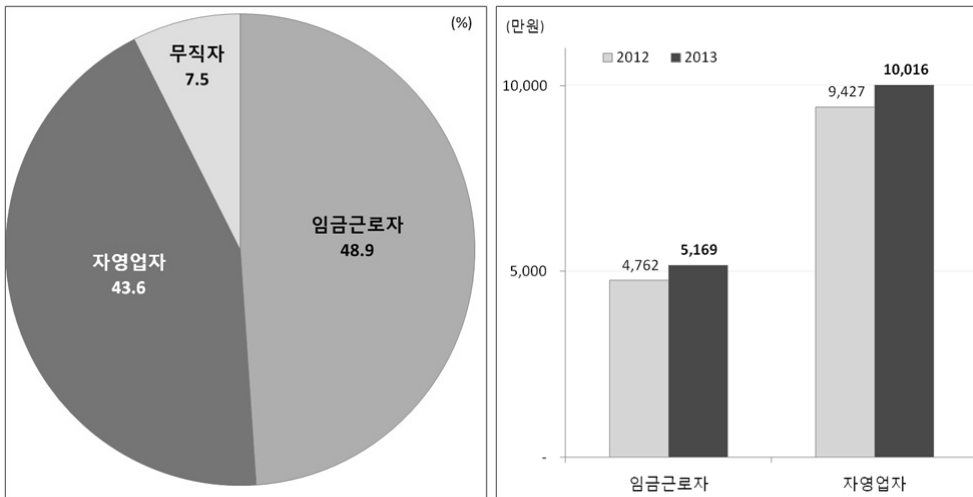
국내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 규모는 명목GDP 대비 약 76%로, 세계 경제포럼이 제시한 채무부담 임계치 75%를 넘어서면서 빚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더디게 증가하였다. 결국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04년 103%에서 2012년 136%로 상승하여 국민의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가계의 재무안정성을 떨어뜨려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자영업자에게 있다.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소득이 불안정하고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서 채무불이행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총 금융대출가구 중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은 23.7%인 반면, 총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비중은 43.6%에 달한다([그림 1] 참조). 가구당 부채규모도 임금근

* 저자 최근 연구:

-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2014), 2014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2014) 등
- 1) 자영업자는 단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자,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 자영업체에서 보수 없이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다. 통계청의 경우 자영업자를 고용주와 자영자에 한정하고 있지만, 본고는 국제비교를 위해 OECD 기준과 국회기준에 따라 자영업자를 정의하였다.

로가구의 약 두 배에 달한다. 2013년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당 가계부채가 10,016만원에 달해, 임금근로자 가구의 5,169만원보다 매우 많은 상황이다([그림 2] 참조).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는 반면, 자영업자는 내수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소득의 등락이 크고 채무상환능력도 미약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주요한 대상이 되어야 하겠다.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금융대출이 있는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그림 1] 종사상지위별 가계부채 비중(2013)

[그림 2] 종사상지위별 가구당 가계부채

2.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증가 배경

임금근로자 가구는 생활비 및 교육비, 부동산 구입을 위해 부채를 늘리지만, 자영업자 가구는 사업자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채에 의존한다. [표 1]을 보면,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의 31.1%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23.6%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가계부채를 확대시켰다. 특히, 고용주 가구는 상대적으로 사업자금 마련(29.8%)을 위한 대출이, 자영업자 가구는 생활비 마련(33.2%)을 위한 생계형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 평균 창업비용이 2010년 6,570만원에서 2013년 7,257만원으로 증가한 것도

사업자금 대출 확대의 한 요인이다([표 2] 참조). 특히 치킨집, 제과점, 호프집, 음식점 등의 생활밀접형 자영업¹⁾이 집중되어 있는 음식숙박업에서 창업비용이 2010년 7,540만원에서 2013년 9,234만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하였다. 편의점, 서점 등과 같은 소매업의 창업비용은 연평균 6.4%, 미용실, 네일아트 등과 같은 개인서비스업의 창업비용도 연평균 7.1% 증가하였다.

반면, 임금근로자는 생활비 마련(35.7%), 교육비 마련(26.4%)을 위한 대출이 많다. 특히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이 20.9%로 자영업자 가구의 11.2%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창업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1] 2012~2013년 가계부채 증가 원인 (%)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자영자	
부동산 구입	20.9	11.2	16.1	9.6
사업 자금	3.1	23.6	29.8	21.6
생활비	35.7	31.1	24.3	33.2
교육비	26.4	13.9	9.0	15.5
부채 상환	7.0	14.6	16.8	13.9
기타	6.8	5.7	3.9	6.2

[표 2] 자영업자 평균 창업비용 (만원, %)

산업구분	2010	2013	연평균 증감률
전체	6,570	7,257	3.4
제조업	6,808	7,245	2.1
전기/가스/건설업	9,139	6,849	-9.2
소매업	6,198	7,460	6.4
음식/숙박업	7,540	9,234	7.0
운수/통신업	4,265	4,874	4.5
부동산/임대업	4,892	4,704	-1.3
사업서비스업	6,726	7,202	2.3
교육서비스업	6,769	6,840	0.3
오락/문화/운동	9,765	10,932	3.8
개인서비스업	4,338	5,328	7.1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자료 : 중소기업청,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1) 경제활동과 밀접한 업종으로서 전국 사업자수가 최소 5,000개 이상인 개인사업자 중에서 30개 생활밀접형 자영업자로 정의한다(국세청).

3. 자영업자의 소득감소와 채무상환능력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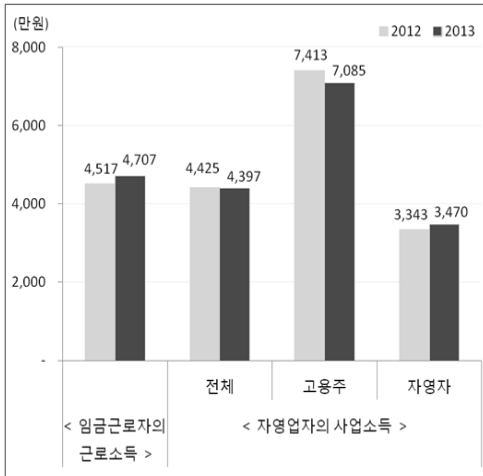
최근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는 사업소득이 2012년 4,425만원에서 2013년 4,397만원으로 감소했다([그림 3] 참조). 특히, 고용주 가구의 사업소득이 7,413만원에서 7,085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자영자 가구의 사업소득은 3,343만원에서 3,47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자영업 소득감소의 원인은 주로 ‘경쟁과밀’이다. [그림 4]와 같이,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원인은 동종업종간의 경쟁(41.8%), 대형 및 온라인업체와의 경쟁(22.9%), 경기악화에 따른 고객감소(14.6%), 임대료 등 운영비 부담(11.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동종업종이 과밀하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밀접형 자영업창업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퇴한 상당수의 베이비붐세대가 자영업으로 이동하면서 과밀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은퇴후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우리 경제가 고용창출력이 떨어져 베이비붐세대를 노동시장으로 흡수하지 못한 결과이다. 전체 자영업자는 2012년 713만명에서 2013년 705만명으로 줄어든 반면, 50대 베이비붐세대의 자영업자 규모는 212만명에서 217만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50대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 후 자영업을 창업하면서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유사업종의 자영업 과밀화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폐업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는 채무상환비율(DSR)¹⁾도 31.5%에서 34.9%로 3.4%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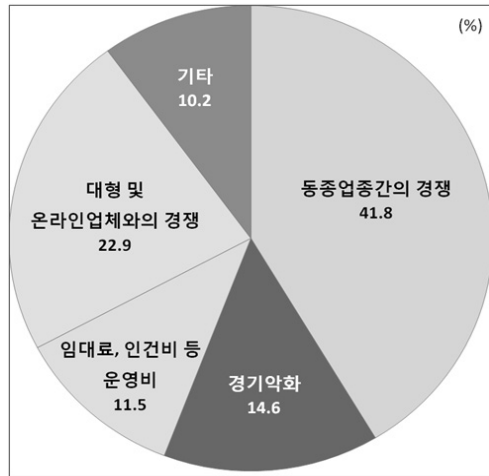
한편,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2012년 4,517만원에서 2013년 4,707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가구는 중소득층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경상소득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안정적인 소득은 채무를 상환하는 능력도 높게 만든다.

1) 유량(flow) 측면에서 부채 상환을 위한 현금조달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로, 개별 가구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의 생계부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제 금융기관들은 통상적으로 채무상환비율이 40%를 넘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한국은행은 ‘과다채무가구’로 정의한다.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그림 3] 중상상지위별 경상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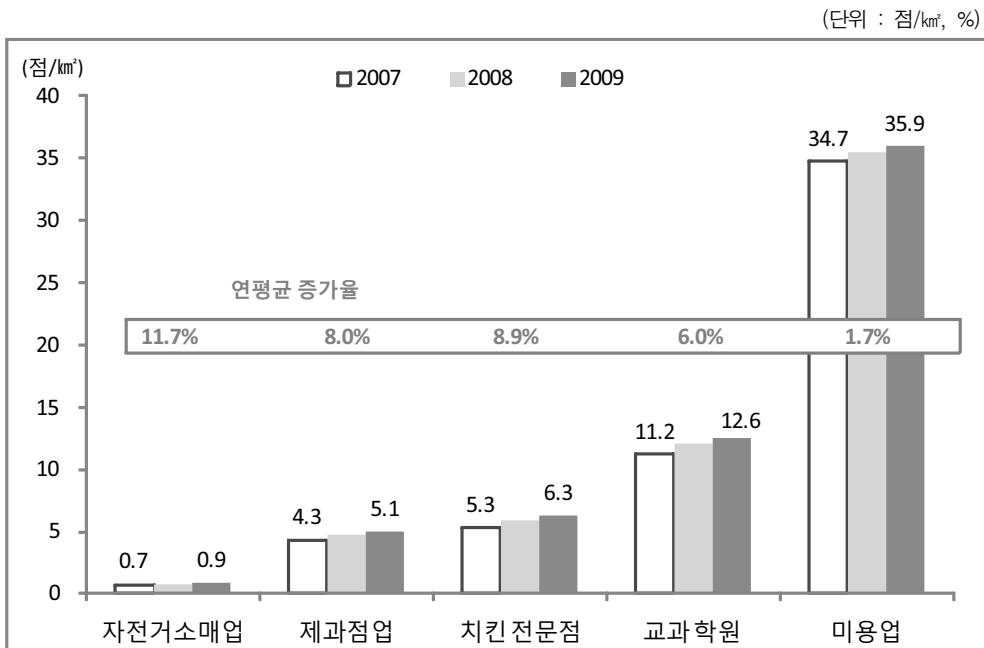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그림 4] 자영업 소득감소 원인

4. 서울시의 자영업 경쟁 과밀화

서울시는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자영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서울시 미용실, 학원, 치킨점, 제과점 등의 생활밀집형 자영업체 1km²당 평균 5개 이상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미용실은 1km²당 평균 35.9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어, 과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교과 학원, 치킨점, 제과점은 각각 1km²당 평균 12.6개, 6.3개, 5.1개의 점포들이 입점해 있고,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주요 자영업체들의 밀집도 추이와 연평균 증가율이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1 : 증가율은 07-09 연평균 증가율을 가리킴
 주2 : 서울시 면적은 605.33km²(서울시청)

[그림 5] 서울시 자영업 밀집도

특히, 은퇴한 베이비붐세대가 음식점, 호프집 등 생활밀집형 자영업 창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창업자 100명중 35명은 생활밀집형 자영업으로 창업하고 있다. 생활밀집 업종의 창업자 수는 33만 명으로 전체 창업자 93만 명의 약 35.1%를 차지

한다. 생활밀접형 자영업 창업자중 10만 1,000명(31.1%)이 음식점을 창업하였고, 그밖에 의류점, 부동산, 미용실, PC방이 주를 이룬다.

2009년 창업자중 약 26.2%(24만 2,000명)는 2007~2008년 회사를 퇴직한 사람으로, 이 중 24%(5만 8,000명)가 음식점·호프집 등 생활밀접형 자영업을 창업하였다.

서울시의 각 구별 최다 사업자 업종 현황을 [표 3]을 통해 제시하였다. 주로 미용실, 편의점, 음식점, 호프집과 같은 생활밀접형 자영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자영업 창업자의 과반수가 2년 내 폐업하고 있다. 준비 없이 창업한 베이비부머세대는 과잉경쟁에 따라 수익성이 열악하여 폐업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밀집해 있는 업종에 추가적으로 진입하여,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부도 자영업자 중 50대가 47.6%를 차지했다. 50대는 은퇴 전 모아두었던 자금을 모두 창업비용에 쓰고, 폐업 후 회생이 어렵게 된다.

[표 3] 서울시 각 구별 최다 사업자 업종 현황

(단위 : 명)

자치구	업종	사업자수	자치구	업종	사업자수
강남구	미용실	959	송파구	예체능학원	579
	입시·보습학원	962		문구점	178
	화장품	736	중구	의류점	2,995
	세탁소	401		안경점	170
	인테리어	763	종로구	서점	120
	편의점	371	강서구	자동차수리	304
	음식점	6,978	영등포구	이발소	406
관악구	슈퍼마켓	240	마포구	호프집	1,110
	인터넷PC방	247	은평구	철물점	100
서초구	꽃가게	672	동대문구	과일가게	102
	가구점	106	광진구	통신기기판매	174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주1 :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

주2 : 전국평균 사업자수 = 업종별 전체 자영업자수 / 전국 시군구수(232)

5. 정책적 시사점

자영업자를 위한 제1의 정책은 ‘창업 지원’ 이 아닌 ‘(재)취업 지원’ 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은퇴한 50대는 종사했던 산업 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그 능력이 우리 경제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취업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시간선택제 근로자 형태로 축소된 시간에 근로 하면서 후임 지도와 교육을 할 수 있다. 혹은 실업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실무전문가로서 해당 산업 내 직업교육 과정을 일임할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의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과도 연계되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만들 수 있다.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준비된 창업자’ 를 육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겠다. 흔히 취업준비도 1년이 넘게 걸리는데, 창업 준비 3개월은 너무 짧지 않은가? 단순한 금융지원으로 끝나는 창업지원책은 은퇴한 50대를 폐업과 가계부채 문제를 야기한다. 업종 선택, 창업 방법, 경영 노하우, 서비스와 기술 등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은퇴 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취업을 유도하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자영업 창업지원 교육이 보다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의 창업교육이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주로 교육내용이 창업기술에 있다. 거시적인 창업경제와 경영 노하우를 전달하여, 창업 업종과 지역을 선택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창업기술도 이미 과밀화되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제과 제빵기술, 미용기술, 네일아트 기술 등 이미 과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생활밀접형 자영업 업종에 추가적인 과밀화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창업기술도 고부가가치 있고, 과밀화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영역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진입해 있는 자영업자도 신규 진입하는 자영업자도 모두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OECD(2010), “Factbook.”
- 국회예산정책처(2011.9),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 김광석(2012.7),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자영업자의 10대 문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2-27(통권 제 498호).
- 김광석(2014.2),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4-07(통권 제 578호).
- 김광석(2014.4),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4-14(통권 제 585호).

수도권 가계부채 분포와 특징

김진성*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

jins.kim@kbfsg.com



1. 국내 가계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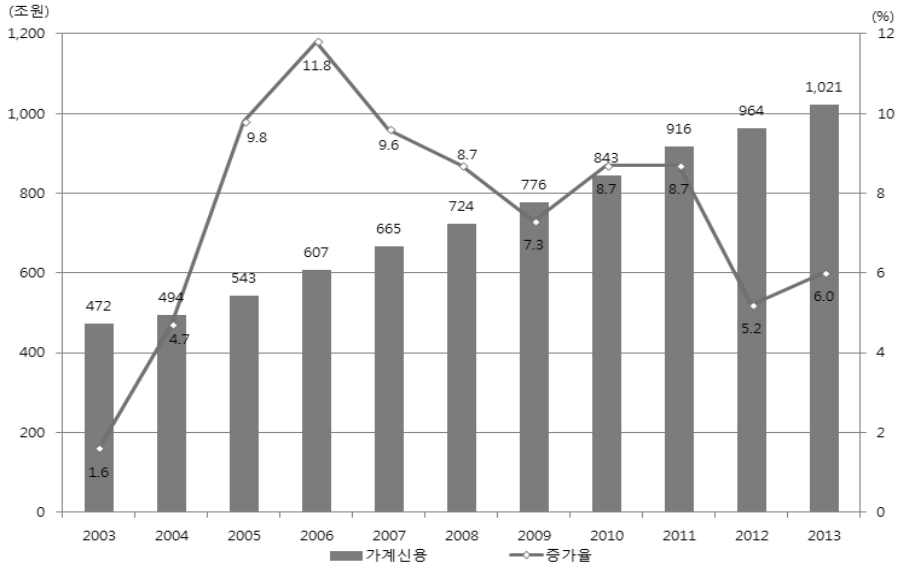
국내 가계부채는 2013년 말 1,021.4조원(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으로 처음으로 천조원을 돌파하여, 2014년 3월말 기준 1,024.8조원에 이르고 있다. 2003년 말 가계부채는 472조원으로, 과거 10여 년 간 총액으로 1.2배, 연평균 8%씩 증가하였다. 과거 10여 년 간의 가계부채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2003~2004년은 카드사태의 영향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2005~2007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2011년까지 증가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10년 평균인 8%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2013년에 5~6% 수준으로 한 단계 더 하락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가계부채가 급증한 데에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출 대신 가계대출 확대에 중점을 둔 금융권의 공급 정책과, 재개발 등으로 아파트 거주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취급 확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30~50대 수요 인구의 증가 등이 맞물린 영향이 크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생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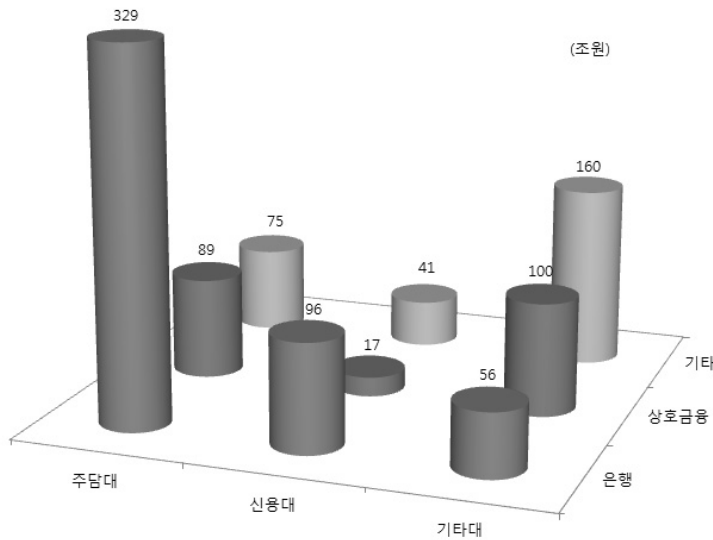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KAIST 경영학 박사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최근 연구: 가계부채 분포 분석(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3),
가계부채 고위험군 분석(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등

대출, 서민층의 신용대출 등이 늘어 대출 증가폭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낮은 기대감, 한계 가구의 원리금 상환 여력 부족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좀 더 둔화되고 있다.



[그림 1]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율 (2003~201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금감원 보도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판매신용 58조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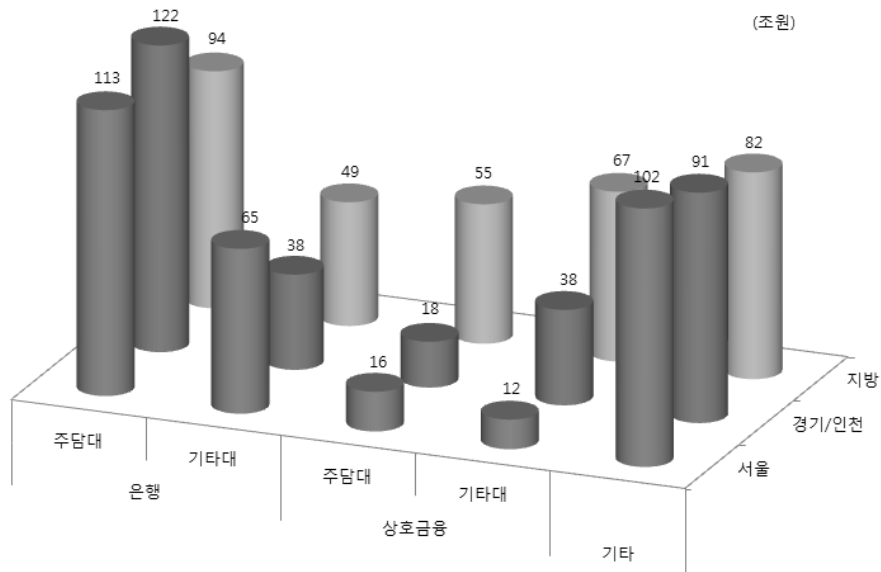
[그림 2] 가계부채 구성 (2013)

국내 가계부채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이하 가계대출)의 상품별 구성을 살펴보면, 2013년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대출이 16%, 그리고 부동산담보대출,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전세자금 등) 담보대출 등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하 은행)이 가계부채의 50%,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하 상호금융)이 21%, 보험사, 카드사, 연기금, 대부업체 등 기타금융기관(이하 기타 금융기관)이 29%를 차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비은행권(상호금융+기타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영업 확대 노력, 업권별 차등적 LTV, DTI 규제 및 금리 상한 규제 등으로 인해 2013년 4분기에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비중이 50%(50.04%)를 넘어서게 되었다.

기관-상품별 구성을 살펴보면, 은행-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의 1/3 가량인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호금융-기타대출(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이 10.4%, 은행-신용대출이 10.0%, 상호금융-주택담보대출이 9.3%로 뒤를 잇고 있다. 이를 통해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 주요 가계대출 상품이고, 상호금융에서는 부동산-주택담보대출이 주요 가계대출 상품임을 알 수 있다. 비중 17%인 기타금융기관-기타대출은 보험담보, 차량담보, 주식담보, 퇴직금담보 등 여러 형태의 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2. 서울/수도권 가계부채 현황

한국은행은 예금취급기관(은행 및 상호금융)에 한해 지역별 가계신용 규모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3년 말 기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서울 및 경기/인천)의 예금취급기관 가계신용은 421.5조원으로 판매신용을 제외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687.2조원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기관별 특징을 살펴보면 은행의 가계대출 중 수도권 비중은 약 70% 정도,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중 수도권 비중은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은행 영업망의 수도권 집중, 아파트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수도권의 높은 주택가격 및 생활비와 상호금융(농협 등)의 지방 영업망과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 영업 비중 등이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점이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가 대다수인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비중이 7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의 수도권 비중을 보수적으로 예금은행의 수도권 비중으로 가정할 경우, 수도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약 615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963조원의 6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한국은행, 기타업권은 추정치

[그림 3] 지역별 가계부채 구성

수도권 가계대출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인 50% 가량으로 추정된다. 업권별로는 수도권 은행 대출중 53%, 상호금융 대출중 33%를 서울이 차지하고 있다. (기타금융기관은 앞의 단락과 비슷한 논리로 수도권 은행 대출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인 53%를 적용하였다.) 수도권에서 서울과 경기/인천 간 대출 이용행태 차이점을 보면, 서울의 경우 은행-기타대출(신용대출의 비중이 높음)의 비중이 매우 높고, 비은행 이용 규모는 미미한데 비해, 경기/인천의 경우 은행-기타대출과 상호금융-기타대출(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음)이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분석 가능한 자료의 제약(서울과 경기/인천 분리 불가능) 등을 고려하여, 서울과 경기/인천 간 가계부채 특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가정하고 수도권 가계부채의 특징을 살펴본다.

3. 수도권 가계부채 분포와 특징

이하는 통계청 ‘2013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개인이 아닌 가구기준 (가구원 전체의 자산-부채/소득-소비 합산) 자료이다.

[표1]은 금융부채(거의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부채로 앞 장과의 비교를 위해 총부채에서 임대보증금 부채는 제외) 보유여부 및 특정 종류의 금융부채 보유여부를 가지고 그룹을 나누어 평균적인 부채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전국 기준 금융부채 보유 가구는 1,813만 가구 중 1,223만 가구로 비중은 67%이며,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는 5,892만원,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금융부채는 2,200만원이다. 수도권의 경우 금융부채 보유 가구는 863만 가구 중 609만 가구로 비중은 71%이며,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는 6,853만원,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금융부채는 3,000만원이다. 수도권의 주거/생활비가 높기 때문에 부채규모가 지방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금융부채 규모 현황

(단위: 만가구, 개, %, 만원)

		가구수	샘플수	부채비중	부채평균	중앙값
전국	전체	1,813	9,322	100		
	부채X	591	3,189	0		
	부채0	1,223	6,133	100	5,892	2,200
수도권	전체	863	3,303	100		
	부채X	254	999	0		
	부채0	609	2,304	100	6,853	3,000
	자가주담대X	404	1,535	42	4,367	1,000
	자가주담대0	205	769	58	11,752	8,462
	투자주담대X	563	2,125	80	5,964	2,300
	투자주담대0	46	179	20	17,749	10,800
	부동산담대X	590	2,232	85	5,998	2,720
	부동산담대0	18	72	15	34,250	20,000
	기타담대X	485	1,847	81	6,992	2,700
	기타담대0	123	457	19	6,306	3,400
	마이너스X	499	1,901	68	5,710	2,150
	마이너스0	110	403	32	12,049	6,500
	일반신용X	486	1,841	75	6,450	2,500
	일반신용0	123	463	25	8,449	3,500
	카드론X	567	2,149	92	6,787	3,000
	카드론0	42	155	8	7,747	3,190
현금서비스X	575	2,174	93	6,726	2,980	
현금서비스0	34	130	7	8,995	3,615	

자료: 통계청 ‘2013 가계금융조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표1]의 하단은 수도권 금융부채 보유 609만 가구를 특정 종류의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와 보유하지 않은 가구로 구분하여 부채규모를 비교하였다. 두 그룹 간 평균 및 중앙값의 격차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대출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부동산담보대출(토지 및 건물)과 투자주택담보대출(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의 담보대출)로 해당 대출 보유가구와 미보유가구간 부채 규모 격차가 크며, 다른 하나는 자기주택담보대출(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로 부채규모 격차가 중간 정도이고, 마지막은 일반신용대출, 기타담보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으로 부채규모 격차가 적다. 부채를 더 많이 쓴다는 것은 보통 상대적으로 자산과 소득이 더 많다는 것으로, 따라서 이 세 그룹의 주 사용계층(전체가 아닌 상당부분이라는 의미에서)이 부유층-중산층-서민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2]는 이러한 구분이 실제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특정 종류의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의 분포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의 각 칸은 전체가구 중 해당 구간의 가구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정 항목(총자산, 총부채, 또는 순자산) 별로 가로로 모든 구간 내 비중을 합할 경우 100%가 된다(예, 수도권 전체의 총자산 분포는 1억 미만 30%, 3억 미만 29%, 3억 이상 41%로 모두 합산하면 100%). 또한 수도권 전체의 경우 부채보유가구와 미보유가구간 보유가구 비중의 격차가 5%p 이상 차이가 나면 많은 쪽은 파란색, 적은 쪽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특정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확연히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단에는 [표1]과 달리 수도권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특정 부채를 보유한 가구만 표시하였는데, 이들의 비중이 회색으로 표시된 수도권 금융부채 보유가구 전체의 비중보다 5%p 이상 크면 파란색, 적으면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역시 특정 부채를 보유한 가구가 미보유 가구에 비해 확연히 더 많거나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

[표 2]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분포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1억	~3억	3억~	~5천	~1.5억	1.5억~	~1억	~3억	3억~
전국	전체	34	32	34	71	18	11	40	33	27
	부채X	53	27	20	100	0	0	53	27	20
	부채0	24	35	41	58	26	16	33	36	31
수도권	전체	30	29	41	64	20	16	37	31	33
	부채X	50	25	25	100	0	0	50	25	25
	부채0	22	30	48	49	28	23	31	33	36
	자가주택담대	4	37	59	25	45	30	17	45	38
	투자주택담대	1	16	84	7	24	69	12	29	59
	부동산담대	6	8	86	6	24	71	7	20	73
	기타담대	38	36	26	59	27	14	53	30	17
	마이너스	14	26	61	36	29	35	23	39	38
	일반신용	36	30	34	55	23	23	48	31	21
	카드론	53	26	21	59	28	14	67	18	15
현금서비스	37	36	28	55	24	21	52	35	13	

자료: 통계청 '2013 가계금융조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표2] 중간의 수도권 전체 가구, 금융부채 보유가구 및 미보유 가구를 살펴보면, 부채 보유가구가 미보유 가구에 비해 총자산 및 순자산 1억 초과 가구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쪽의 세부적인 부채 종류를 살펴보면, 투자주택담보대출/부동산담보대출 보유 가구의 경우 총자산과 순자산 3억 이상 보유 가구의 비중이 다른 부채 보유 가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가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보유 가구의 경우 총자산 3억 이상 보유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고, 순자산도 1억 이상 3억 미만 보유 가구의 비중이 금융부채 보유가구 평균 대비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대출 보유가구의 경우 총자산과 순자산이 1억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표1]에서 유추한 대출 종류별 부유층-중산층-서민층 구분이 어느 정도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3]은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사업자는 고용인을 둔 자영업자, 기타는 무직, 가사, 학생 등)와 소득(연간 경상소득)별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전반적으로 부채보유가구에서 좀 더 고소득 가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투자주택담보대출/부동산담보대출 보유 가구의 경우 연소득 7,2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 가구의 비중이 무려 40%에 이르고 있으며, 자가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보유 가구의 경우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1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고, 나머지 4개 대출 중 특히 카드론/현금서비스 보유 가구의 경우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1/3을 상회하고 연소득 7,2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 가구의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득 분포 역시 [표1]처럼 대출 종류별로 부유층-중산층-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연소득 및 가구주 종사상 지위

		소득				종사상 지위				
		~2400	~4800	~7200	7201~	정규직	계약직	사업자	자영업	기타
전국	전체	35	30	18	17	42	15	5	19	18
	부채X	56	23	12	9	32	18	3	15	32
	부채0	24	34	21	21	47	13	7	21	12
수도권	전체	31	30	19	20	48	15	6	15	16
	부채X	50	25	13	12	39	22	4	10	25
	부채0	24	32	21	23	51	13	7	17	12
	자가주택담대	16	32	25	27	53	9	9	20	10
	투자주택담대	16	22	22	40	54	6	11	19	10
	부동산담대	17	23	21	39	33	10	16	25	16
	기타담대	25	35	24	17	54	14	6	16	10
	마이너스	14	29	26	31	59	5	9	18	9
	일반신용	28	31	21	20	53	14	9	16	9
	카드론	35	37	17	11	35	26	8	23	8
현금서비스	35	33	19	12	42	20	10	23	5	

자료: 통계청 '2013 가계금융조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가구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사업자/자영업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고, 카드론/현금서비스의 경우에도 자영업자가 많이 이용하는데, 이를 통해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 자영업자간 대출 상품의 사용 형태가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주택담보대출/자기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일반신용대출/기타 담보대출의 경우 정규직이 고루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직장 형편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이러한 상품들 중 적절한 상품을 골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카드론/현금서비스 보유 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약직 직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4]는 주거 형태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전반적으로는 자가, 아파트, 전용면적 85m² 이상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채를 많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입주형태를 살펴보면 부동산담보대출/자기주택담보대출(이론상 100%가 되어야 하지만, 일부 자료의 오류로 98%로 나타남)/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보유 가구에서 자가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투자주택담보대출 보유가구의 경우에는 전세에 살면서 따로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담보대출 보유가구의 경우 전세 자금 대출 등을 쓸 수 있는 전세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기타담보대출 및 나머지 3개 대출 보유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월세(기타 포함)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주거 형태 분포

		입주형태			주택종류			전용면적			
		자가	전세	월세	단독	아파트	다세대	~59	~84	~114	115~
전국	전체	56	23	21	36	48	16	37	28	23	12
	부채X	47	23	31	44	40	16	48	27	18	7
	부채0	61	22	17	32	52	16	31	29	25	14
수도권	전체	48	30	22	29	49	22	42	23	22	13
	부채X	36	33	32	35	42	23	55	21	17	7
	부채0	53	29	18	27	52	21	37	24	24	15
	자가주담대	98	1	1	11	69	20	23	31	32	14
	투자주담대	36	46	19	27	61	12	26	26	29	20
	부동산담대	60	23	16	29	51	20	12	23	34	31
	기타담대	21	55	25	25	48	27	55	22	17	6
	마이너스	59	26	15	21	61	18	27	25	32	15
	일반신용	35	33	32	30	44	27	48	22	20	10
	카드론	28	26	47	36	40	24	60	17	15	8
현금서비스	38	28	34	28	42	29	50	20	22	8	

자료: 통계청 '2013 가계금융조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주택 종류는 투자주택담보대출/자가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보유 가구의 경우 담보로 잡기 쉬운 아파트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일반신용대출/기타담보대출/현금서비스 보유 가구의 경우 다세대(연립, 다세대 및 기타 포함)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용면적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투자주택담보대출 보유 가구의 경우 115m² 이상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두 대출과 자가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보유 가구는 85m² 이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일반신용대출/기타담보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보유 가구는 60m² 미만의 비중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5]는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 구성원 수의 분포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40~50대와 3인 이상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유 대출별 세부 분포를 살펴보면, 투자/자가 주택담보대출 보유 가구는 40대 및 4인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 보유 가구는 50대와 70대에서 비중이 크며, 대가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신용

대출/기타담보대출의 경우 30대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카드론/현금서비스의 경우 40대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서민층 중에서 아직 젊은 가구는 일반신용/기타담보대출을 주로 사용하지만, 지출이 좀 더 많은 40대 가구에서는 급전으로 카드론/현금서비스까지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추정할 수 있다. [표1]처럼 카드론/현금서비스 대출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가 미보유 가구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론/현금서비스 대출 보유 가구가 단순히 고금리 대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출에 고금리 대출까지 추가적으로 받는다는 해석이 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표 5]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세)					가구원수(명)				
		~39	~49	~59	~69	70~	1	2	3	4	5~
전국	전체	22	26	25	14	14	17	24	21	29	10
	부채X	20	18	19	16	28	33	30	16	16	5
	부채0	23	31	27	12	7	10	21	23	35	12
수도권	전체	26	27	24	12	11	16	22	22	30	10
	부채X	27	20	19	12	21	30	27	18	18	6
	부채0	25	30	26	12	7	10	20	23	35	11
	자가주담대	18	35	30	13	5	6	16	20	45	13
	투자주담대	23	35	27	10	5	4	19	22	45	10
	부동산담대	5	31	41	9	14	3	23	18	34	22
	기타담대	38	32	22	6	2	9	18	27	32	14
	마이너스	26	33	27	10	3	5	14	25	42	14
	일반신용	31	33	26	7	3	11	19	24	34	11
	카드론	24	44	23	8	1	12	16	32	32	8
현금서비스	20	40	29	11	1	11	13	24	37	14	

자료: 통계청 '2013 가계금융조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이상의 분포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담보대출/투자주택담보대출은 중대형 평형에 거주하는 자산과 소득이 비교적 많은 가구들이 다수 사용하고 있는데, 부동산담보대출은 자가에 거주하는 사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투자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 전세에 거주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가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은 중형, 아파트, 자가 가구에 거주하는 자산과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가구들이 다수 사용하고 있다.

일반신용대출/기타담보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는 자산과 소득이 적은 소형, 비아파트(단독 및 다세대), 월세 거주 가구들이 다수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담보대출 보유 가구는 전세 자금 대출 등 전세 거주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반신용대출/기타담보대출은 30대가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론/현금서비스는 특히 소득이 적은 40대, 계약직,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리는 단면적인 분포만을 보고 정리한 것으로 실제 여러 변수들을 조합한 분석결과와 약간 상이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은 해당 그룹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매우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포보다 해당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중이 좀 더 높다는 뜻으로 해석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EOUL ECONOMIC BULLETIN

생생리포트

생생리포트

■ 서울시장년창업센터

박소영(서울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책임)

인생2막의 시작

서울시장년창업센터에서 시작하세요!

박소영 책임
서울특별시 장년창업센터/ 서울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sbapark@sba.kr

I. 서울시장년창업센터 설립배경

1. 추진배경 및 주요변화
2. 센터 운영 및 지원프로그램

II. 서울시장년창업센터 운영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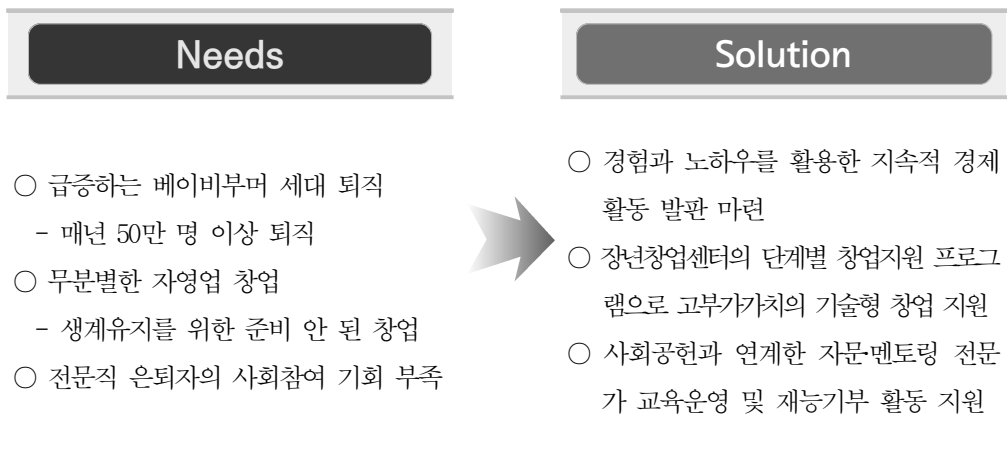
1. 사업 비전 및 핵심사업 안내
2. 희망설계아카데미 운영

I. 서울시장년창업센터 설립배경

1. 설립목적

서울의료원 이전에 따른 구(舊)서울의료원 후관동을 리모델링하여 창업의지가 있는 베이비부머 퇴직 세대를 포함한 40대 이후 장년창업가를 위한 창업보육을 확대하고 희망설계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직 은퇴자를 컨설팅 전문가로 육성하여 창업컨설팅 및 재능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등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2. 추진배경 및 조성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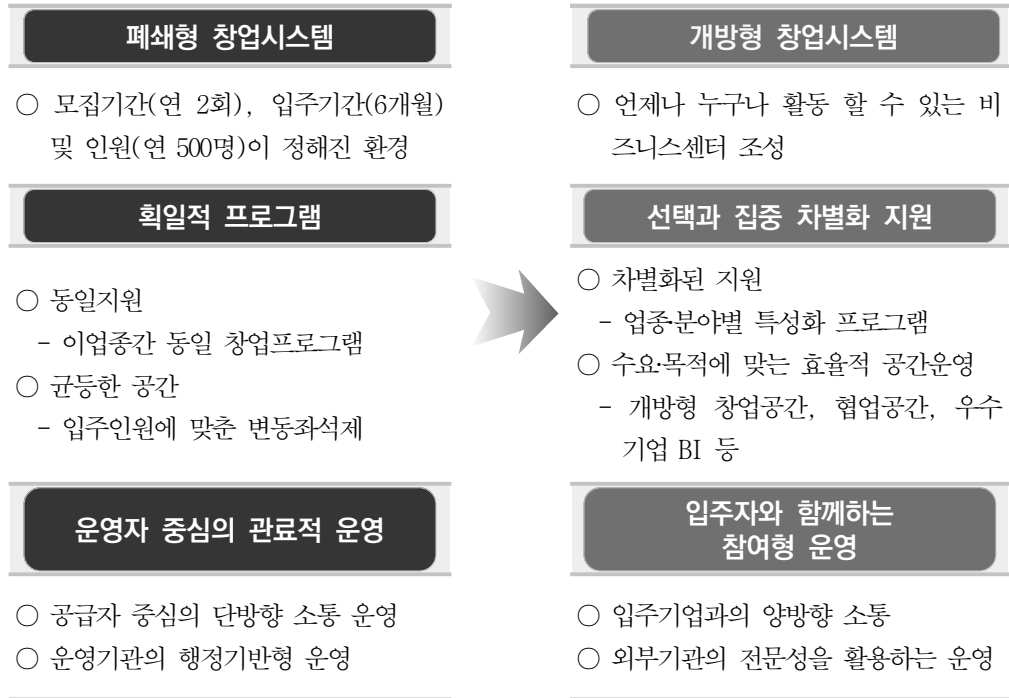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장년(40~50대)층의 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는 2013년 추계로 모두 912만명(총 인구의 17.8%)에 달하며, 2014년부터 은퇴할 인원은 415만명 예상됨
- 증가하는 장년창업 수요를 위한 체계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년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공간 운영 프로그램 운영

3. 장년층의 사회환경 분석

-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
 - ⇒ 1차 베이비부머 세대('55~' 63) 퇴직 급증
 - ⇒ 매년 50만명 이상의 베이비부머세대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 됨
 - ⇒ 핵심 노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
 - 증가하는 창업률, 저부가가치 사업에 몰리는 창업자
 - ⇒ 저부가가치 사업에 몰리는 창업
 - ⇒ 2011년 8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창업률은 2012년 5월 전년대비 16만명 증가
 - ⇒ 저부가가치(숙박음식업·도소매업·건설업), 자영업 위주의 창업자 증가추세
 - ⇒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자영업창업 지속적 증가
(2013년 1월~12월 50대 이상 자영업자 287천명 증가)
 - ⇒ 자영업자 중 40대 이상이 80%를 차지
 - 신설법인 40대 및 50대 전년대비 증가
 - ⇒ 대내외 경제 불황에 따라 2012년 대비 2013년 신설법인 누계 증가율은 청년층인 30세미만(-10.47%), 30대(4.56%)에 비해, 장년층인 40대(9.86%), 50대(20.05%), 60대(25.67%)는 큰 증가를 보임
 -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회참여 증가
 - ⇒ 부유하고 활동적이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 ⇒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가 집단으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 욕구가 높음(대학이상 학력 36.1%, 전문직 종사 25.2%)
 - “동네 경로당” 에서 ” 지역사회 “로 활동무대 이동
 - ⇒ 은퇴한 실버세대의 사회참여 방식이 단순 사교활동에서 실질적 기여를 지향하는 형태로 변화
 - 사회지도층 일수록 은퇴 후 사회봉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참여
 - ⇒ 2013년말 국내 CEO대상 설문조사 결과 은퇴 후, 가장 선호하는 활동은 여행(82%)에 이어 사회봉사(79%)가 2위를 차지(복수응답)
- ➡ 장년층 맞춤형 창업지원 차별화 및 경쟁력

출처 : 통계청, 중소기업청,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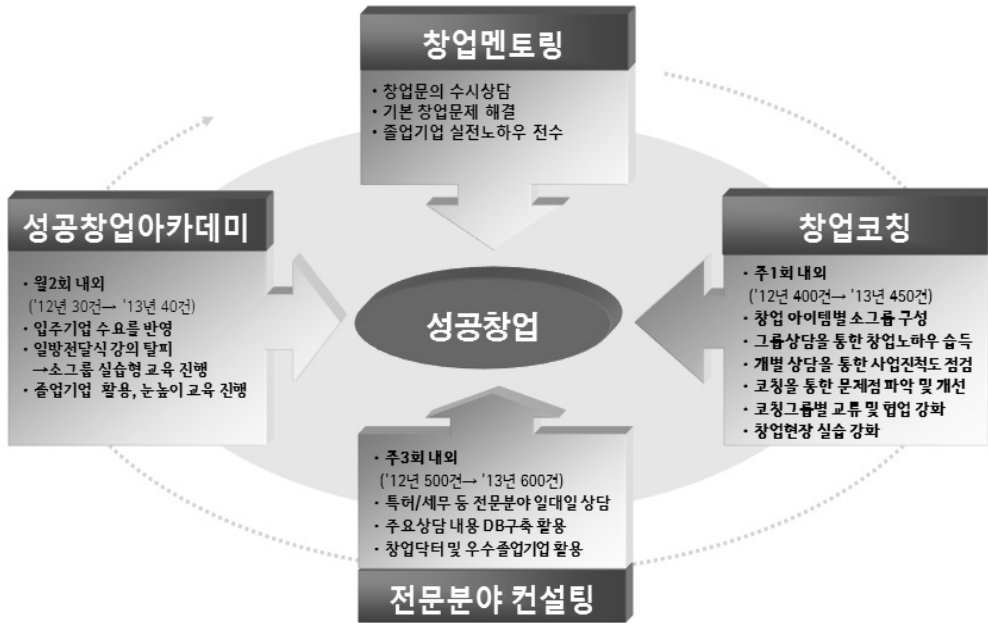
4. 장년창업센터 운영의 주요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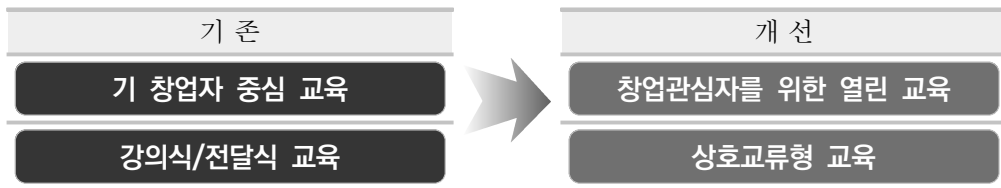
5. 센터운영 및 지원프로그램

	창업이 궁금할 때	창업을 진행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구분			
프로그램명	성공창업 아카데미	창업 코칭	1:1 전문가 상담
대상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회원/비회원)	공통의 관심분야를 지닌 창업자와의 협업 희망 회원	창업 준비 및 창업진행 중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회원
주요내용	창업초보자를 위한 창업교양	창업아이템별/업종별 집중 관리 및 협업	법률, 세무, 특허 등의 전문분야 상담

▪ 지원프로그램 개요



▪ 창업 초보자를 위한 성공창업아카데미



⇒ 예비창업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강의 구성

- 창업에 대한 단계별 요구를 고려한 교육 편성
- 인문·사회분야 등 다양한 창업가의 요구를 포용할 수 있는 교육 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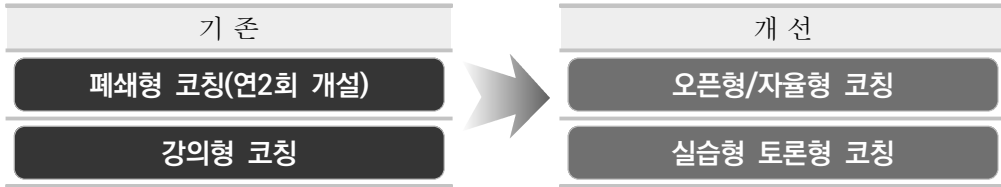
⇒ 상호교류를 통한 열린 네트워킹 교육 시스템 구축

- 강의식 교육에서 확장된 상호 지식교류의 장 마련
- 창업자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체계적 교육운영 관리를 위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 기간별 창업가의 관심분야 및 이슈를 반영한 과정 설계
-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별 특강 개설(예: 분기별 세금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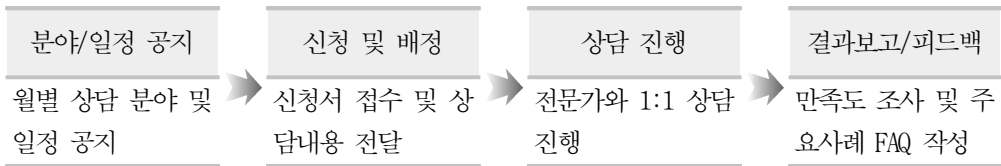
- 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키우는 창업코칭



- 모듈형(3개월 단위)의 코칭프로그램 구성하여 회원 스스로 필요에 따라 코칭그룹을 선택(10개 분야 15개 그룹)
 - 창업아이템과 창업형식에 따라 15개의 소그룹 운영
 -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야간 창업기초반 운영
- 활발한 네트워크가 진행되는 실습형 코칭 운영
 - 업종별 현장 접목형 코칭 실시
(상권분석, 시장트렌드 분석, 특화산업지역 내 우수기업 방문)
 -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회원 간 팀 창업 지원
(협동조합 설립지원, 스마트오피스 제공, 홍보·마케팅 등)

구분	온라인	유통	지식	교육	콘텐츠	패션	IT	벤처	특별	창업기초	합계
그룹수	2	2	1	1	1	1	1	2	2	2	15

- 창업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1:1 전문가 상담



- 창업단계별 취약분야 분석 및 수요조사에 따른 맞춤 상담 진행
- 성공 졸업기업 및 우수 창업닥터 중 분야별 전문가를 발굴하여 창업자의 눈높이에 서 상담
- 주요 상담 사례에 대한 FAQ를 제작하여 향후 교육 자료 활용

< 상담분야 >

구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반분야	창업일반/사업계획	경영관리/상권분석	창업자금
특화분야	마케팅/유통	특허/기술	회계/재무
	디자인	SNS	법률

- 시장에서 통하는 마케팅 지원사업
 - 소싱전문기업 활용을 통한 국·내외 시장 개척

장년창업가	서울산업진흥원	소싱전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및 기업자료 제공 • 1:1 상담을 통한 국내외 유통망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 모집 • 기업별 매칭 및 안내 • 상담회 운영 및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 제품 상담 • 관심기업 제품구매 및 수출 대행

- 입주(졸업)기업의 제품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일본, 러시아 등) 수출전문 기업과의 1:1 제품 상담회 및 세미나 개최
- 1:1 원포인트 세일즈 마케팅 상담회
 - 상담진행 기업 DB에 등록된 국내·외 유통 파워 셀러와의 상담회 개최 ⇨ 관심품목 선정 및 매칭
- 마케팅 체크포인트 세미나(월 1회)
 - 기업소개 및 시장 유통채널 분석
 - 해외판로개척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방법 안내
 -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수출방법과 유통시장 진입 성공사례

수출 전문기업과의 1:1 상담 및 일본 내 유통



▪ 입주자 수요에 맞춘 전시회 참가지원확대

구분	내용
공동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회원기업의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새로운 유통 채널을 발굴하고 창업 초기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 ○ 지원내역 : 회원기업 공동관 구성, 홍보물 제작 지원 등
개별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전시회 공동관 지원의 단점을 보완하여 국내외 판로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 지원내역 : 부스임차 및 전시를 위한 소요경비 일부 지원
시장개척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자체 출장 및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지 쇼케이스 전시 ○ 지원내역 : 업체별 홍보물제작 및 바이어 현장 상담 지원



국내 인바운드 전시회



한상대회



해외 시장개척단(독일)

II. 서울시장년창업센터 운영개요

1. 사업비전

<Mission>

- 베이비부머 제2의 인생을 위한 창업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실현되고 성공되는 창업도시, 서울시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Vision>

창업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 창업' 허브 조성

장년층 맞춤지원을 통한 성공창업자 양성

맞춤형 시스템 구축

+

단계별 창업지원체계 구축

+

전문가 허브 구축

실전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 맞춤형 창업지원프로그램 강화
- 다양한 기회 공유와 경험 제공
- 협력형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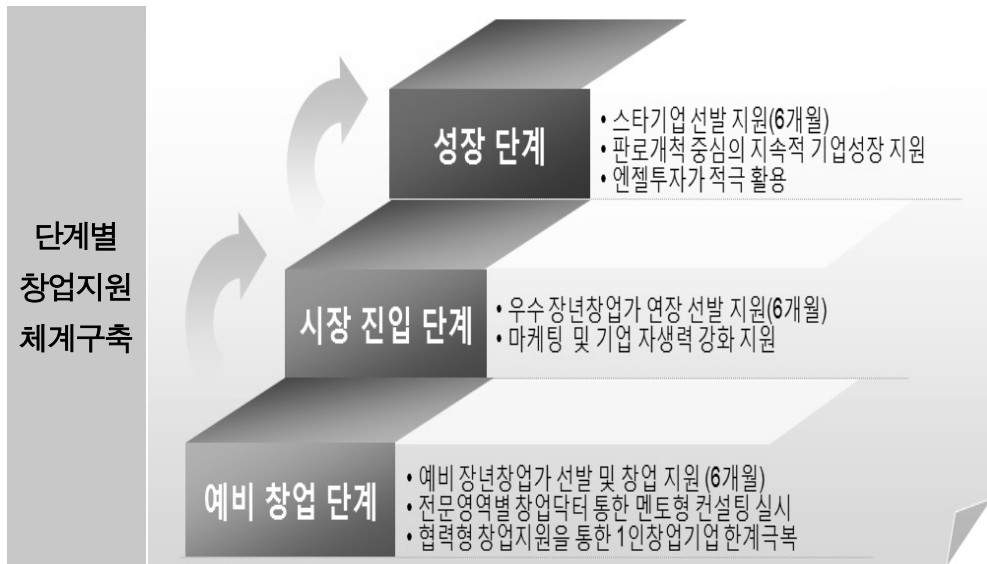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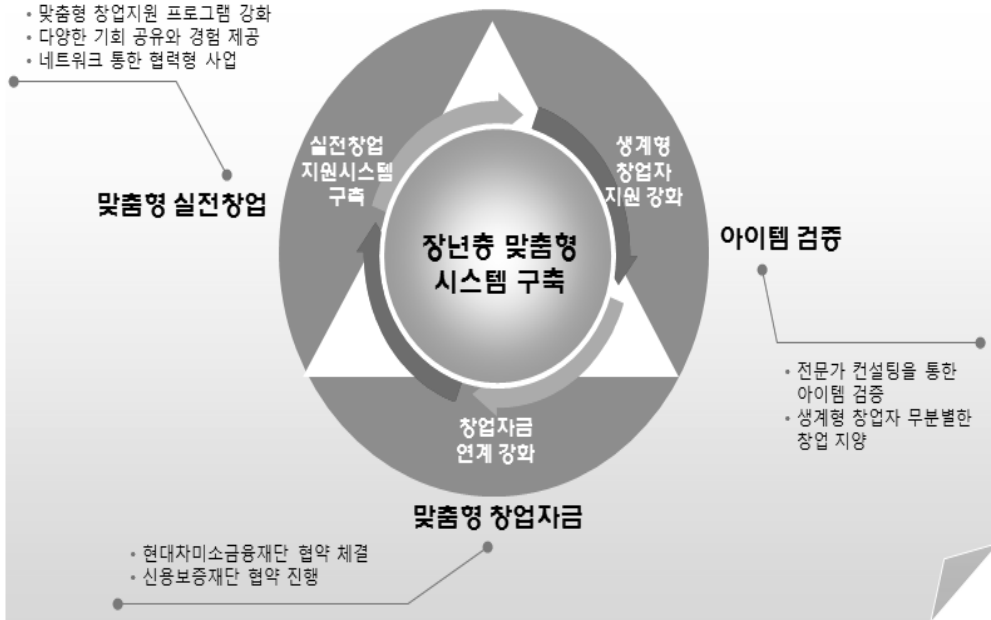
자생력 강화 및 지속성장 지원

- 예비창업단계
- 예비 장년창업가 창업지원
- 시장진입 단계
- 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 성장단계
- 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자문 및 멘토링 전문인력 육성

- 재능기부와 접목한 자문 및 멘토링 전문인력 육성
- 청장년 초기창업가 어려움 해결
- 분야별 전문가 DB 구축

■ 핵심사업



2. 희망설계아카데미 운영

▪ 사업배경

전문직 은퇴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청·장년 창업기업 및 서울소재 중소기업 대상 창업닥터 및 사회환원 활동과 접목한 재능기부형 자문 및 멘토링 전문인력 육성

- 재능기부와 접목한 자문 및 멘토링 전문인력 육성
- 분야별 전문가 POOL 공유 및 DB 구축

▪ 희망설계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및 선발

- 전문분야 은퇴자의 경험과 노하우 등 숨씨의 전수가 가능한 인력 선발
- 면접 심사시 창업닥터 자문활동 및 사회공헌 적합성 파악을 위한 면접 가이드라인 제시



구 분	내 용	
모집대상	청·장년 창업기업 및 서울소재 중소기업 대상 자문이 가능한 40세 이상 서울시민(주민등록 및 사업장 소재지 기준)	
모집분야	청년창업기업 대상 창업닥터 활동 분야별 모집 (지식서비스, 콘텐츠, 유통서비스, IT벤처, 온라인)	
선발인원	연200명 내외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정량평가 모집인원 2배수 선발
	2차 면접심사	면접위원 정성평가 고득점 순 100명 선발

- 재능기부와 접목한 자문 및 멘토링 전문인력 육성



- 희망설계아카데미 교육개요
 - 창업다터 자문 및 멘토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초기창업기업 지원제도 강화
 -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시나리오로 구성, 실제 자문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희망설계아카데미 교육운영 커리큘럼

구분	입문공통	전문공통	전문특화	워크샵
	은퇴 후 생애설계, 창업닥터 및 수강생 상호 이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이해, 비즈니스 멘토링, 창업초기 기업 이해 등	컨설팅 수행계획, 정량적·정성적 기업분석, 전략대안 및 실행계획 수립, 컨설팅 보고서 작성 등	자문 및 멘토링 실전 워크샵, 현장 실습, 창업코칭 실습	팀빌딩 및 수료식
내용				

▪ 창업기업 성장 발판을 위한 자문컨설팅

- 맞춤매칭: 「창업닥터 자문신청서」를 활용, 창업기업의 자문희망분야를 파악하여 업종과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매칭
- 창업기업의 수요에 따라 자문방법의 다양화 : 개별, 그룹별, 자문기간 연장 등

SEOUL ECONOMIC BULLETIN

인포그래픽스

인포그래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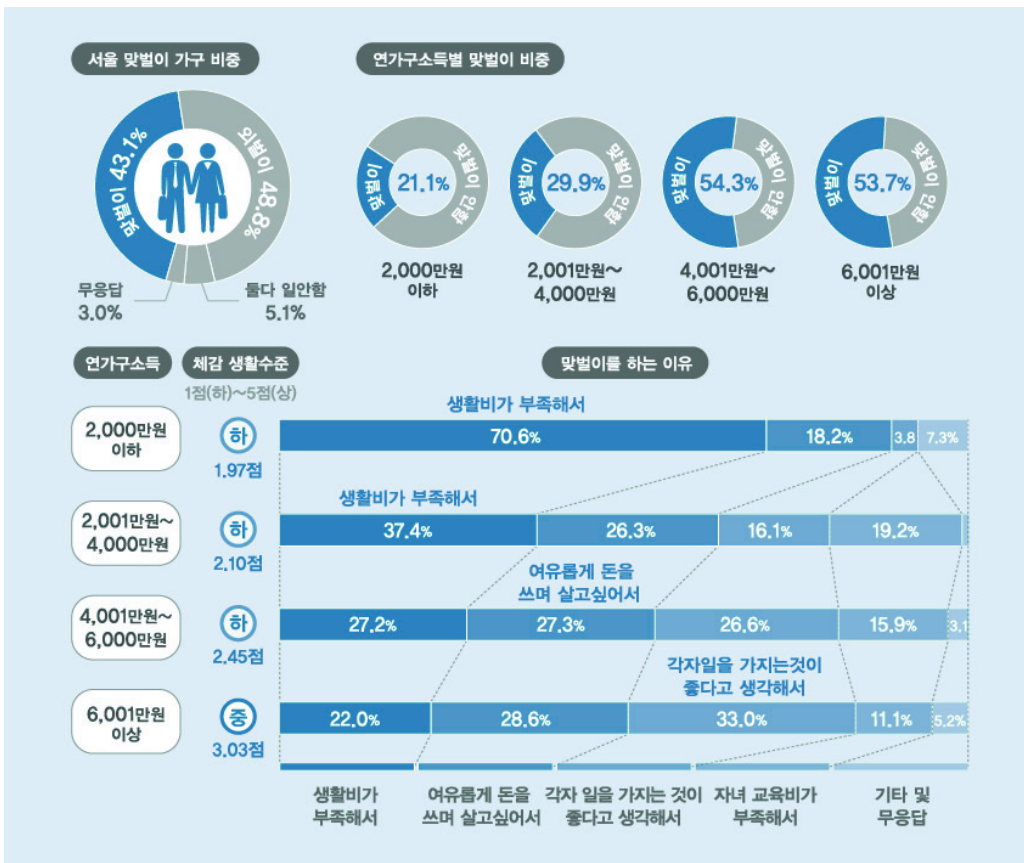
■ 서울 맞벌이 부부 현황은?

박희석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센터장)

장윤선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서울의 맞벌이 부부 현황은?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서울 맞벌이 부부 비중은 전체 가구의 43.1%이며,
연소득 6,001만원 이상인 가구부터 생활 수준에 대한 체감이 ‘중’**

- 서울 맞벌이 부부 비중은 전체 가구의 43.1%이며 연가구소득 4,001만원 이상부터는 50%가 넘는 비중 차지
 - 서울 맞벌이 가구 비중은 43.1%, 외벌이 가구 비중은 48.8%, 둘 다 일 안하는 가구 5.1% 차지
 - 연가구소득별 맞벌이 비중을 살펴보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맞벌이 비중이 21.1%, 29.9%로 비중이 적고, 4,001만원 이상인 가구는 절반 이상이 맞벌이 부부

- 연소득이 6,001만원 이상인 가구부터 생활 수준에 대한 체감이 ‘중’
 -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평균 체감 생활수준이 ‘하’인 반면 연소득이 6,001만원이 넘는 경우부터는 ‘중’
 -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들이 맞벌이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생활비가 부족해서’인 반면 연소득이 4,001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인 가구들은 ‘여유롭게 돈을 쓰고 싶어서’, 6,001만원 이상은 ‘각자 일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가 가장 큰 비중 차지

〈표 1〉 서울 가구의 맞벌이 여부

(단위: %)

맞벌이 함	맞벌이 안함	둘다 일안함	모름/ 무응답	계
43.2	48.8	5.1	3.0	100.0

〈표 2〉 연가구소득별 맞벌이하는 이유

(단위: 가구, %)

		2,000만원 이하	2,001~4,000 만원	4,001~6,000 만원	6,001만원 이상	전체
합계	가구 수	27	89	163	174	453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생활비가 부족해서	가구 수	19	33	44	38	135
	비율	70.6	37.4	27.2	22.0	29.8
여유롭게 돈을 쓰며 살고싶어서	가구 수	5	23	44	50	123
	비율	18.2	26.3	27.3	28.6	27.1
각자 일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가구 수	1	14	43	57	116
	비율	3.8	16.1	26.6	33.0	25.6
자녀교육비가 부 족해서	가구 수	0	17	26	19	62
	비율	0.0	19.2	15.9	11.1	13.8
기타+모름	가구 수	2	1	5	9	17
	비율	7.3	1.1	3.1	5.2	3.7

〈표 3〉 연가구소득별 맞벌이 체감 생활수준

(단위: 가구, %)

		2,000만원 이하	2,001~4,000 만원	4,001~6,000 만원	6,001만원 이상	전체
합계	가구 수	27	89	163	174	453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상 (4~5점)	가구 수	1	0	11	52	64
	비율	3.8	0.0	6.9	29.9	14.2
중 (3점)	가구 수	7	30	62	77	176
	비율	26.4	33.4	38.0	44.2	38.8
하 (1~2점)	가구 수	18	58	88	44	208
	비율	66.2	65.4	53.9	25.2	45.9
모름	가구 수	1	1	2	1	5
	비율	3.7	1.1	1.2	0.6	1.1

주: 조사기간은 2014년 5월 19일 - 25일,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pm 3.0\%$ 이며 표본크기는 서울 소재 1,050가구

자료 : 2014년 2/4분기 서울연구원 소비자 체감경기전망(CSI) 부가조사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경제동향

- **요 약**
- **생 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 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 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 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 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요약 | 5월 서울의 경제동향

생
산

- 서울의 5월 제조업생산지수는 89.9로 전년동월대비 4.6% 감소
- 5월 제조업 출하·재고 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0.7%, 9.8% 각각 증가하여 경기확장기

소
비

-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2,359억원으로 전국(6조6,078억원)의 33.8%를 차지
- 5월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3.5%, 14.4% 각각 증가

고
용

- 서울의 5월 취업자는 513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0.4%)이 증가
- 서울의 5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4%p 증가, 실업률은 4.8%로 전년동월대비 0.5%p 증가

물
가

- 2014년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9.7(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부
동
산

-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은 강북지역(-0.02%) 특히 용산구(-0.23%)와 강북구(-0.13%)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01% 하락
- 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은 강북지역(0.17%) 특히 강북구(0.62%)와 구로구(0.31%)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15% 상승

금
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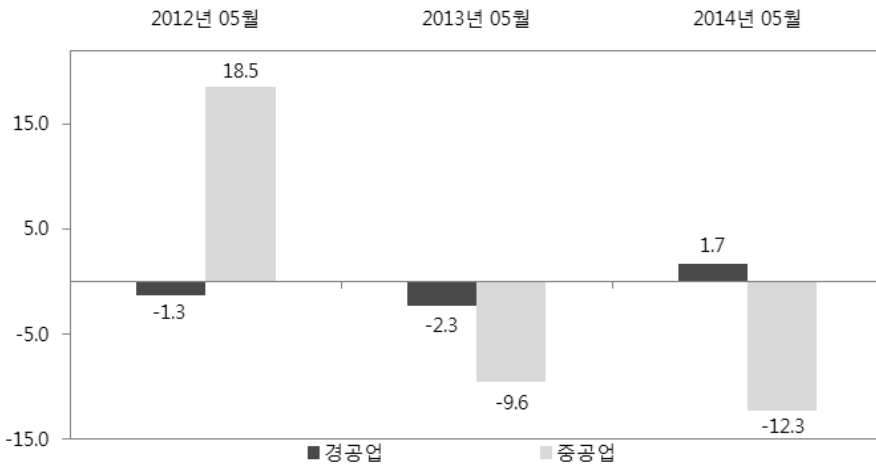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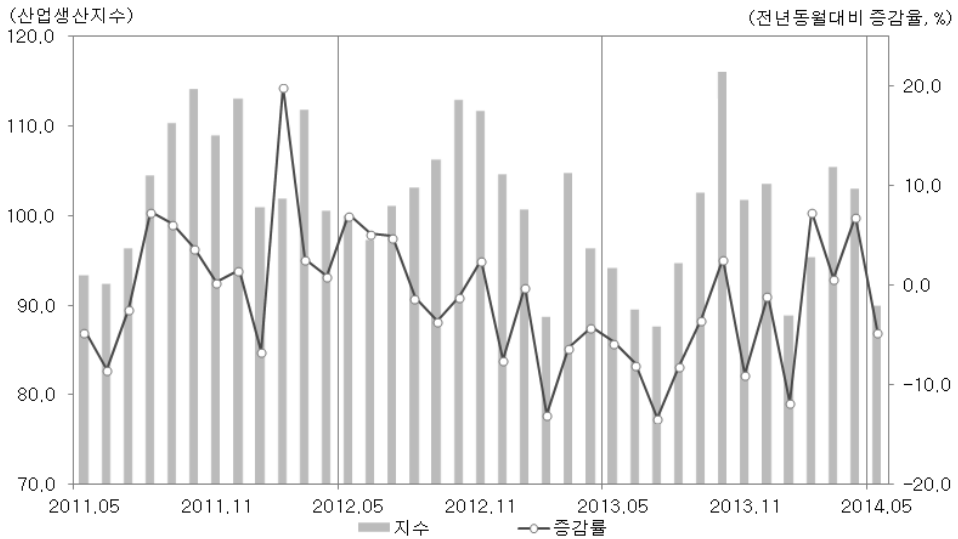
- 서울의 5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80조 7,137억 원으로 전월대비 0.3% 증가, 그 중 가계대출은 179조 6,320억 원으로 전월대비 0.2% 증가
- 서울의 5월 신설법인수는 2,103개로 전월대비 13.0% 감소
- 서울의 5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1.7% 감소

수
출
입

- 서울의 5월 수출은 54.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품목별로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5월 수입은 113.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13.0% 증가,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생 · 산 |

- 서울의 2014년 5월 제조업생산지수 89.9(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4.6% 감소
 - 공업구조별로 중공업 부문 전년동월대비 12.3% 감소, 경공업 부문 1.7% 증가
 - 제조업 부문별로 전년동월대비 전기장비(44.7%), 섬유제품(6.9%), 의복 및 모피(0.8%) 등 증가, 의료정밀광학(-22.4%), 기계장비(-18.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17.9%) 등 각각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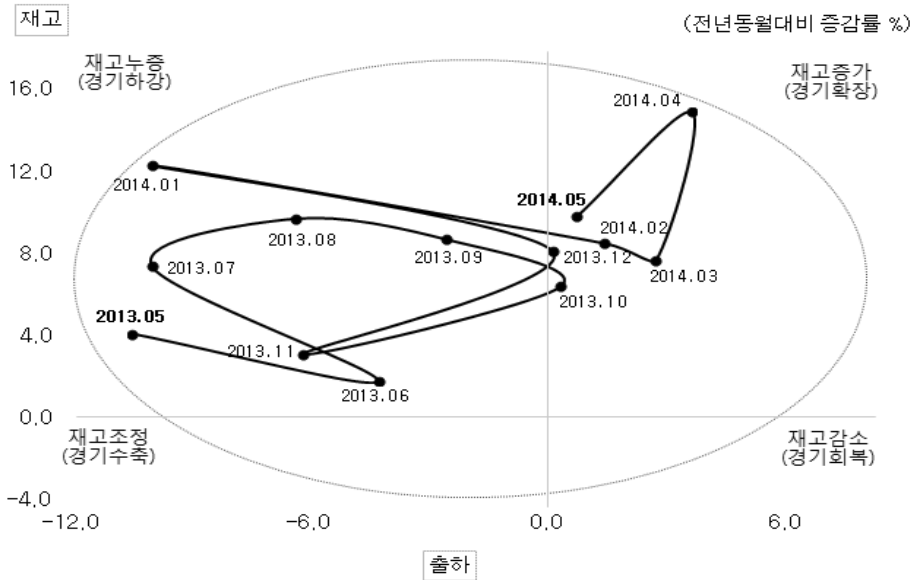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 출하 · 재고 순환 |

- 서울의 5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재고 증가로 경기확장기
 - 서울의 5월 출하지수는 91.8(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서울의 5월 재고지수는 117.3(2010=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9.8% 증가
 - 출하, 재고 상승하여 경기확장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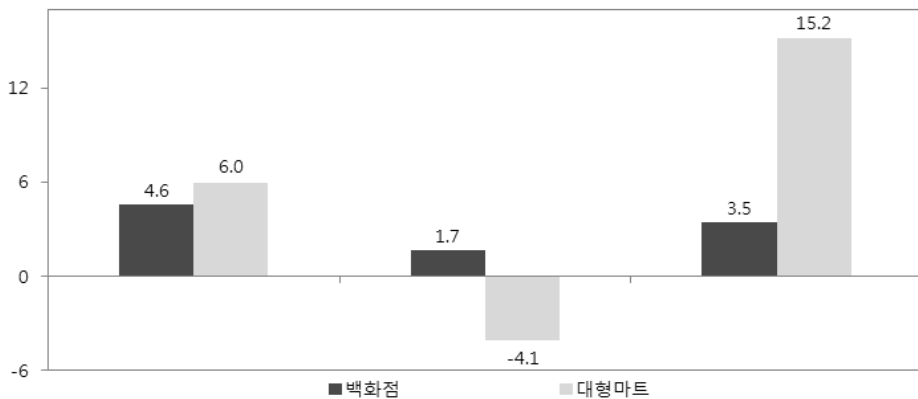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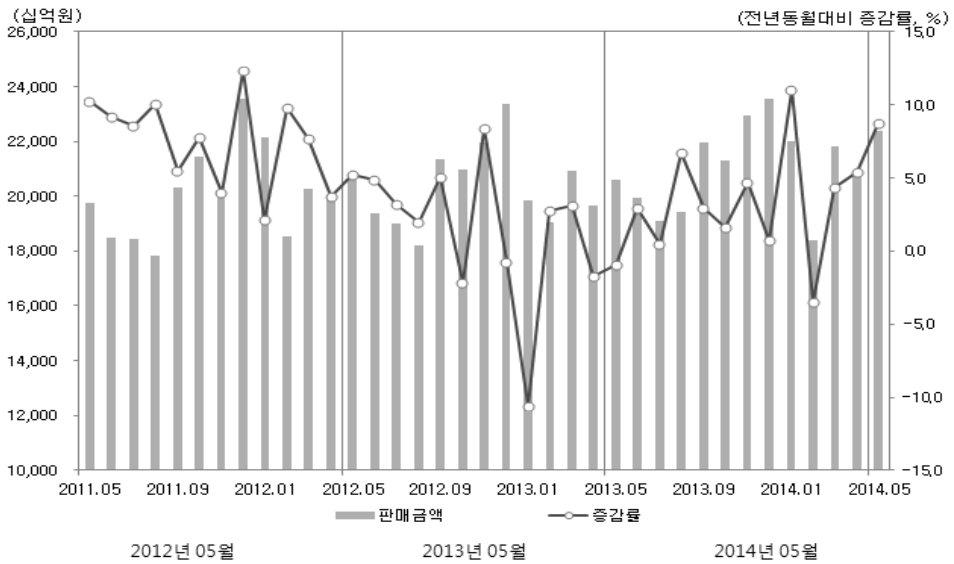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8.7% 증가

-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2,359억원으로 전국(6조6,078억원)의 33.8%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1조1,956억원으로 전국(2조5,916억원)의 46.1%,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404억원으로 전국(4조163억원)의 25.9%를 차지
-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1.0으로 전년동월대비 5.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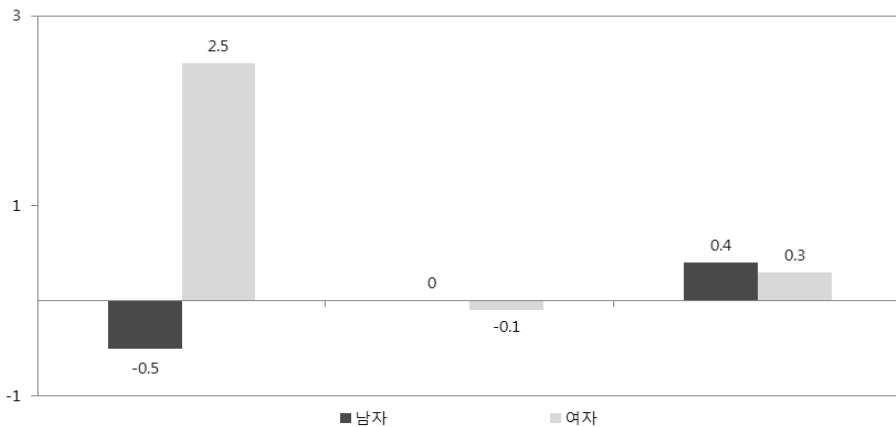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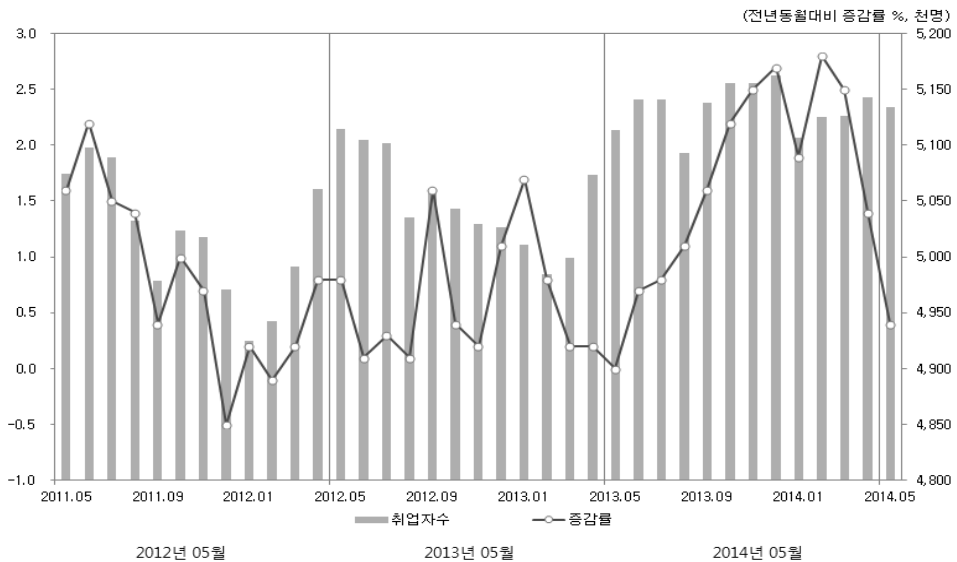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 취·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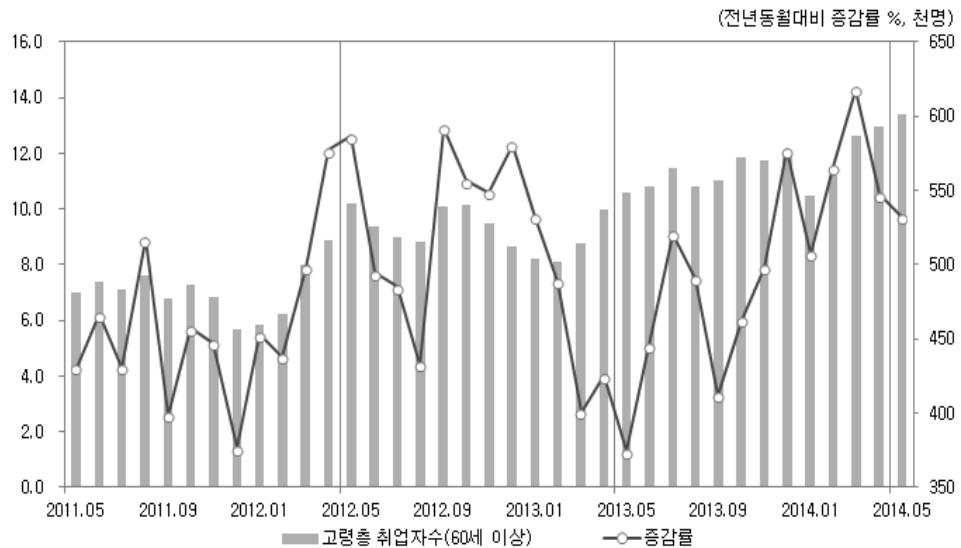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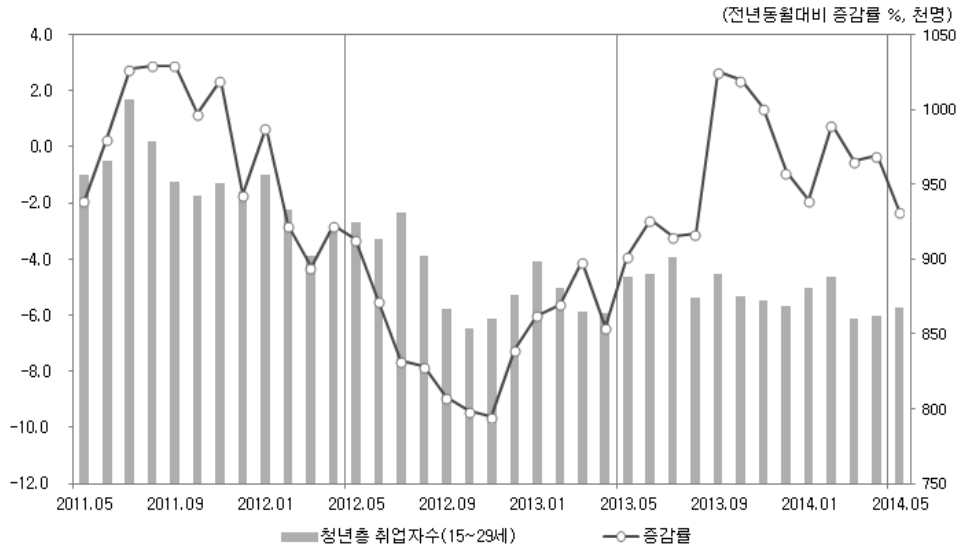
- 서울의 5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0.4% 증가
 - 서울의 5월 취업자는 513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0.4%)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7만명, 여자는 226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만3천명(0.4%), 여자는 7천명(0.3%)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업 8만3천명(6.3%), 제조업 3만7천명(8.2%)이 각각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 서울의 5월 청년층(15세~29세) 증감률은 마이너스, 고령층(60세 이상)은 플러스 증가세
 - 서울의 5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6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 감소
 - 서울의 5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60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7%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청년층의 취업 증감률은 3개월 연속 감소세로 고령층과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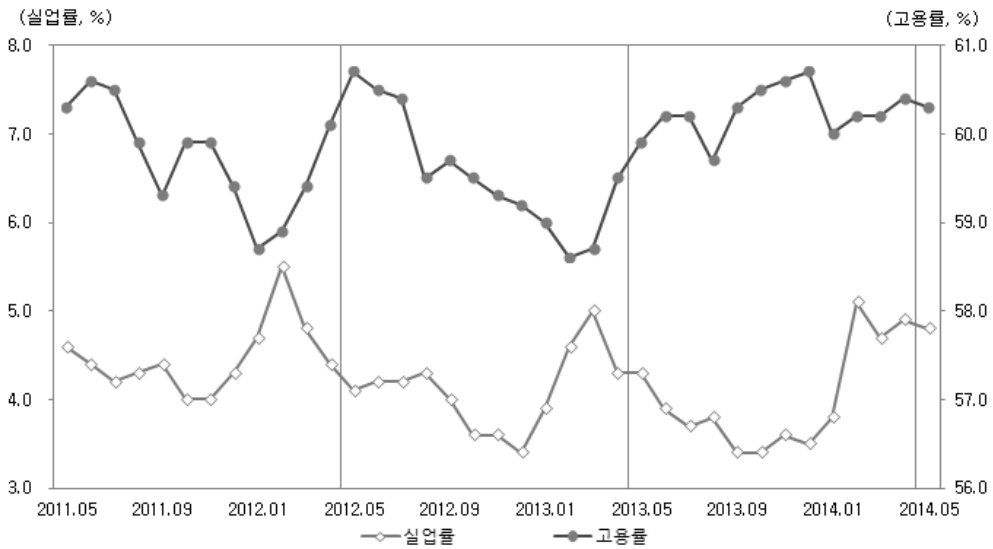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 서울의 5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국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5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4%p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3%로 전년동월대비 0.6%p, 여자는 51.1%로 0.2%p 각각 증가
 - 2014년 5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60.8%)보다 0.5%p 낮은 수준

- 서울의 5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동일,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5월 실업자는 25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명(13.0%)이 증가
 - 실업률은 4.8%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4%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여자는 5.3%로 1.1%p 상승
 - 2014년 5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6%)에 비하여 1.2%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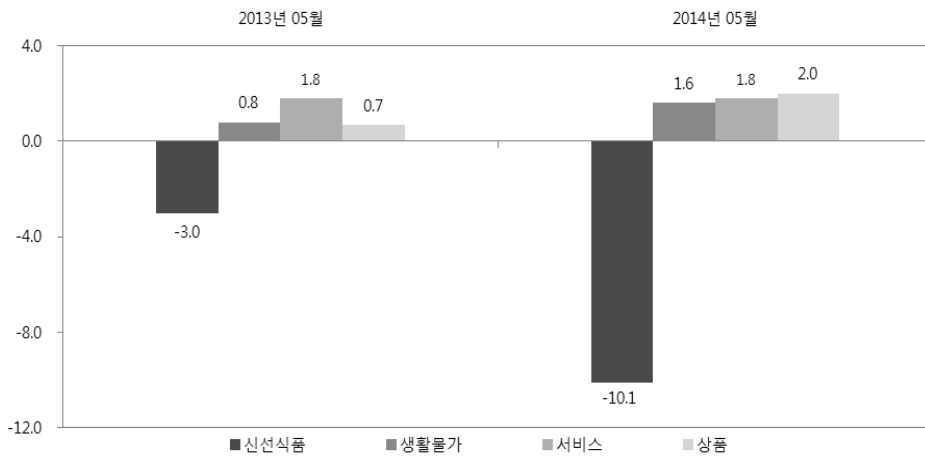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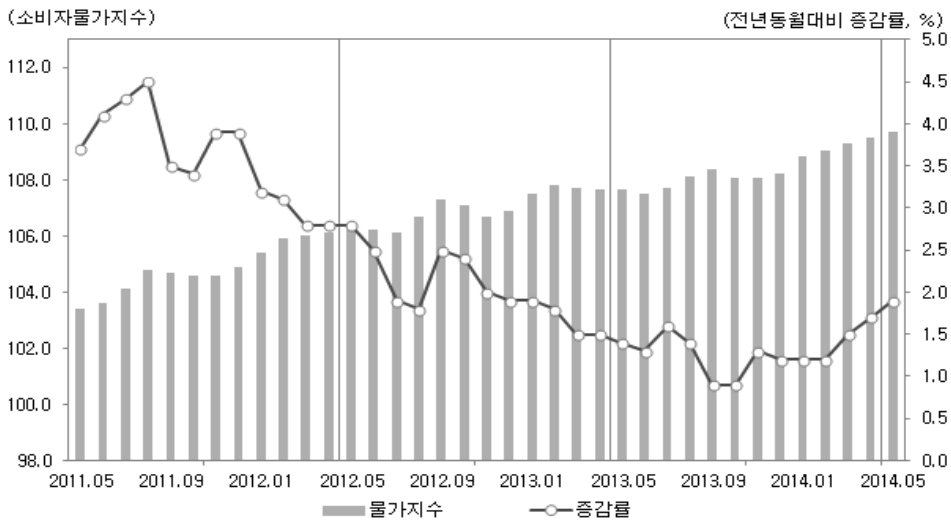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 서울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 2014년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9.7(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주류 및 담배(-0.4%)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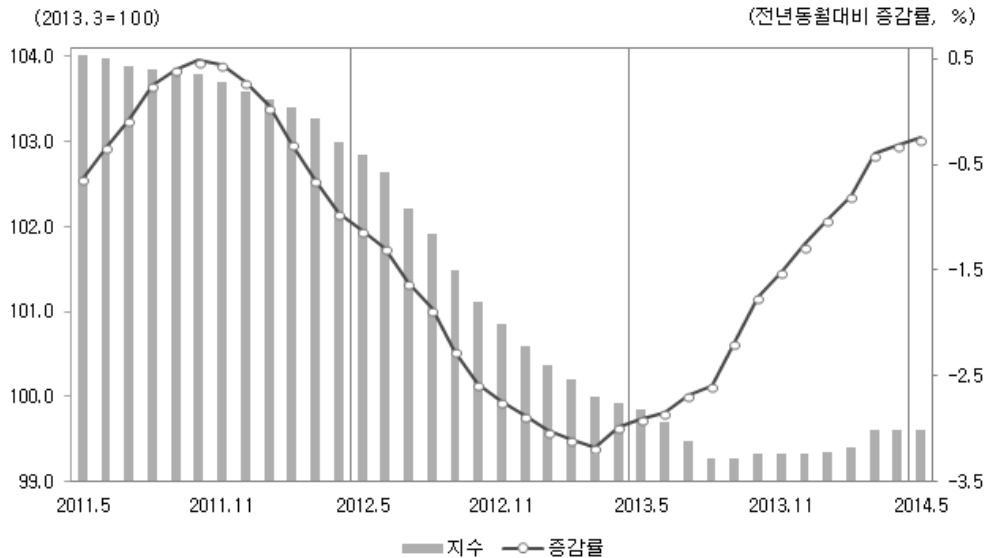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01% 감소
 - 강남지역 전월대비 보합, 강북지역(0.02%) 전월대비 하락
 - 주요 하락지역: 용산구(-0.23%), 강북구(-0.13%), 강서구(-0.07%), 양천구(-0.04%)
 - 아파트(-0.03%), 연립주택(-0.01%), 단독주택(0.08%)

- 전국의 5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07% 상승
 - 광역시(0.15%), 기타지방(0.11%), 수도권(0.01%) 모두 전월대비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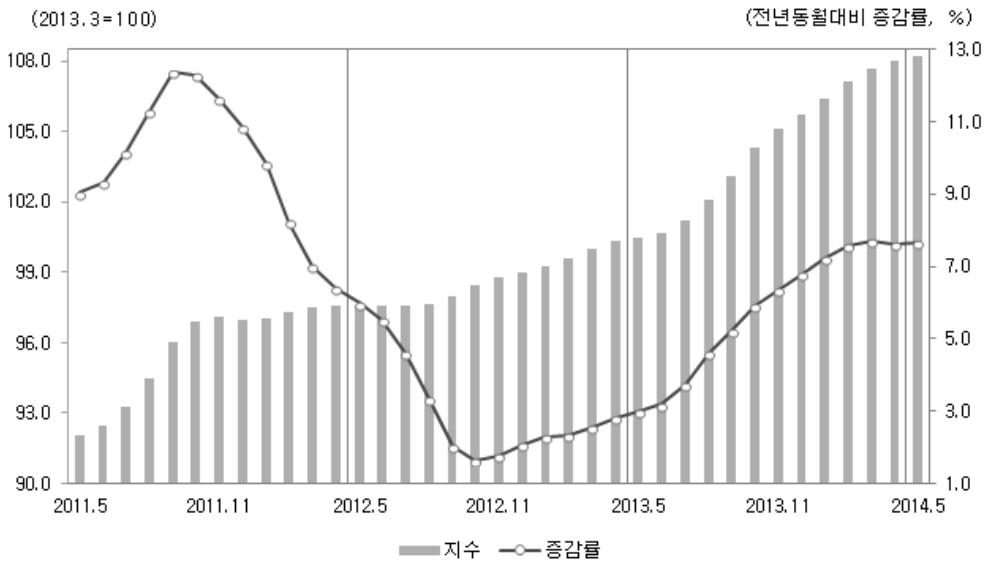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5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감소, 매매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
 - 평당 매매가격(1,631만원)은 전월(1,632만원)대비 0.05% 감소
 - 매매거래건수(6,068건)는 전월(8,538건) 대비 28.9% 감소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15% 상승
 - 강북지역(0.17%), 강남지역(0.12%) 모두 전월대비 상승
 - 상승률 상위지역: 강북구(0.62%), 구로구(0.31%), 송파구(0.30%), 동대문구(0.23%)
 - 연립주택(0.26%), 단독주택(0.16%), 아파트(0.09%) 등 상승세 지속

- 전국의 5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14% 상승
 - 광역시(0.16%), 수도권(0.15%), 기타지방(0.10%) 모두 전월대비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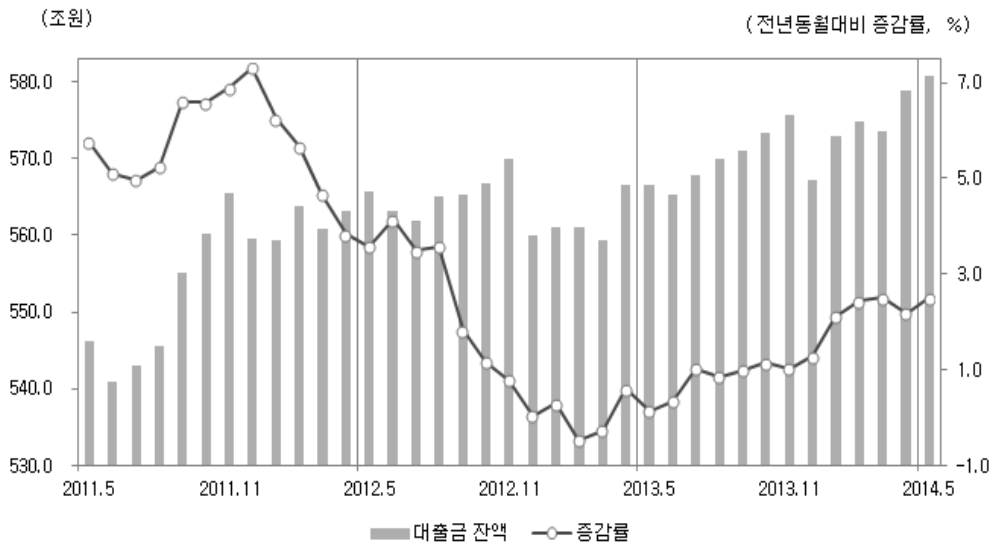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5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 전세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
 - 평당 전세가격(1,010만원)은 전월(1,007만원)대비 0.3% 증가
 - 전세거래건수(9,273건)는 전월(9,571건) 대비 3.1% 감소

| 가 · 계 · 대 · 출 |

- 5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580조 7,137억원)은 전월(578조 8,654억원)대비 0.3% 증가
 - 그 중 예금은행(476조 9,735억원)과 비예금은행(103조 7,402억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6% 증가, 6.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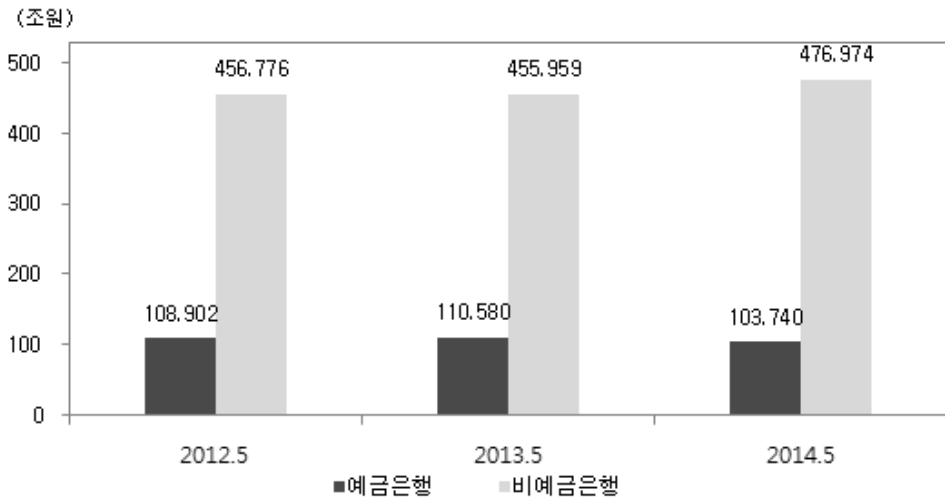
- 5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1,559조 2,794억원)은 전월(1,550조 1,610억원)대비 0.6%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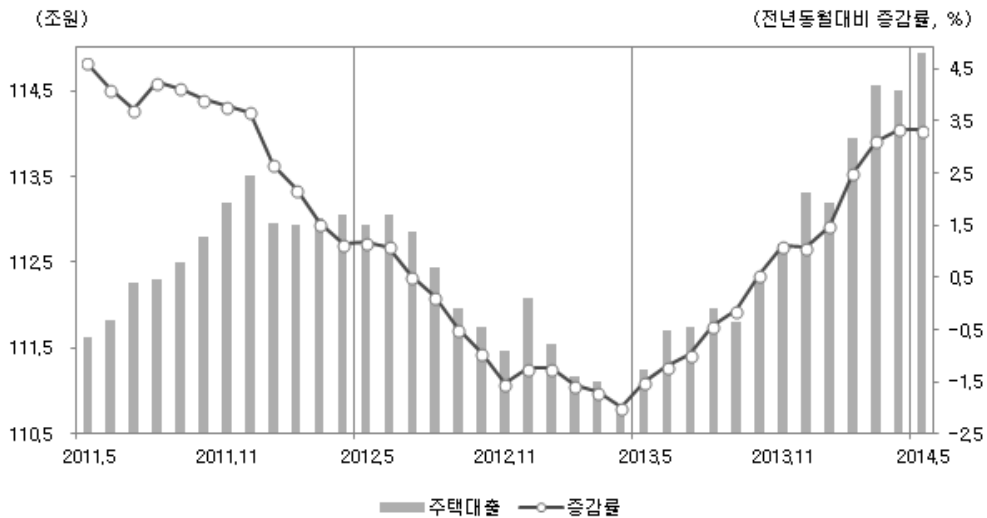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5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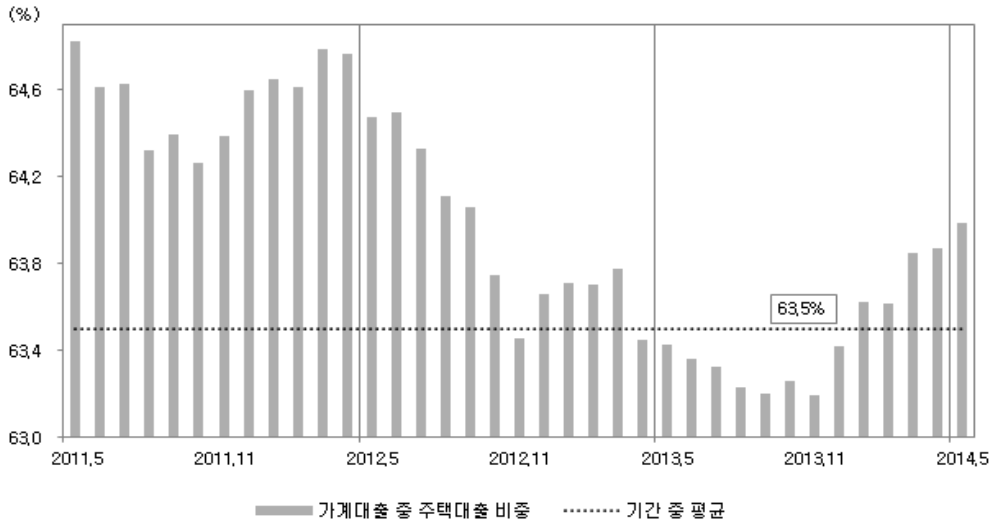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179조 6,320억원)은 전월(179조 2,657억원)대비 0.2% 증가
- 그 중 주택대출(114조 9,458억원)은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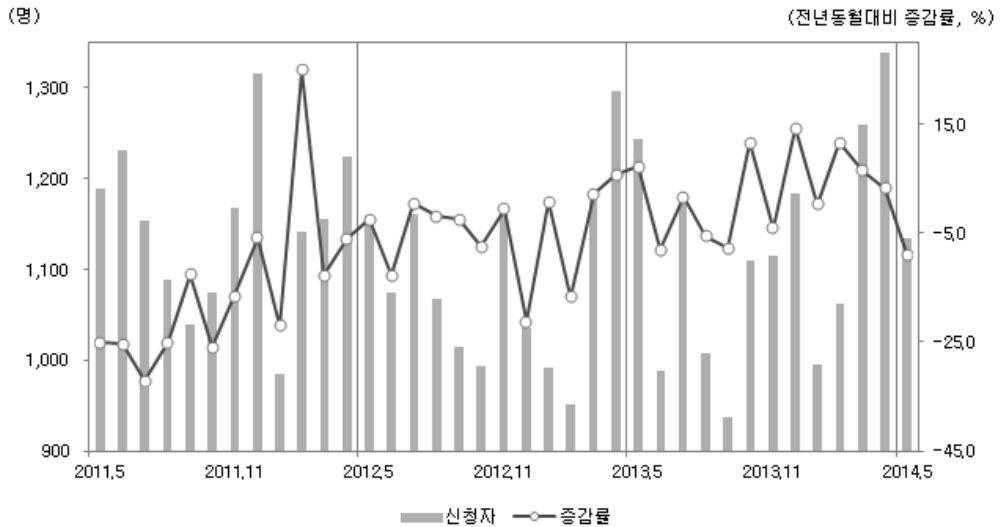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 5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감소

- 개인파산 신청자(1,134명)은 전월대비 15.2% 감소, 전년동월대비 8.8%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1.0%)은 전년동월대비 43.6%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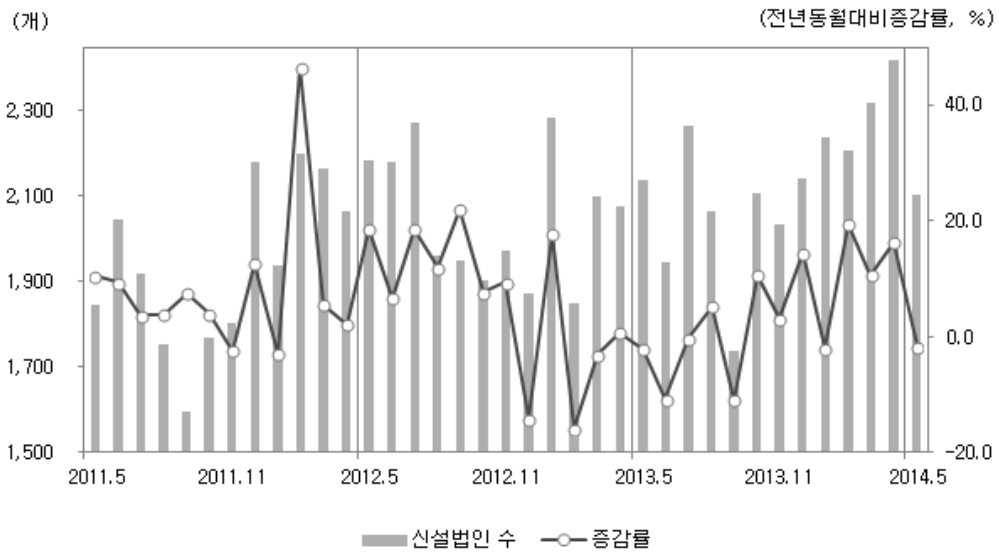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 신 · 설 · 및 · 부 · 도 · 범 · 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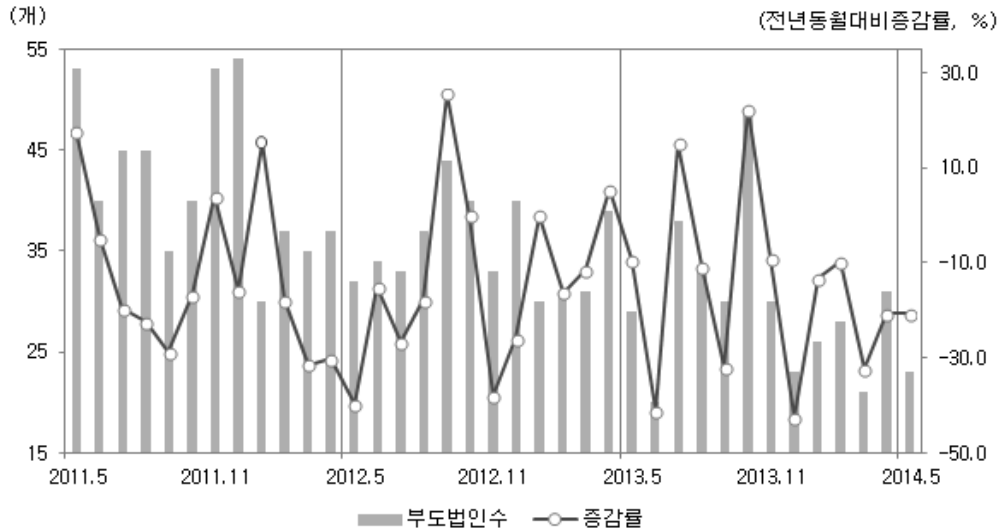
- 서울의 5월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103개로 전월대비 13.0%(315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1.7%(37개) 감소



자료 :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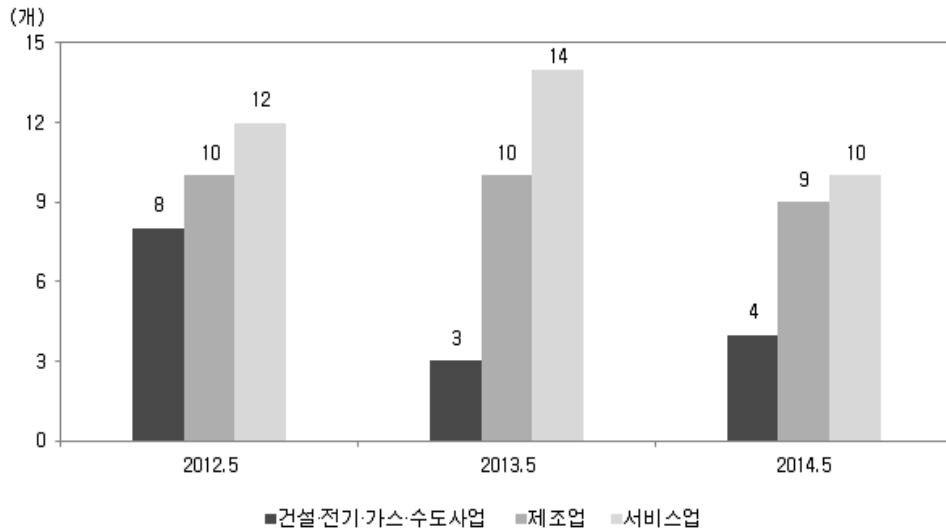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 서울의 5월 부도업체 수 건설 및 설비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23개로 전월대비 25.8%(8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20.7%(6개) 감소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33.3%(1개) 증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월 대비 각각 18.2%(2개), 41.2%(7개) 감소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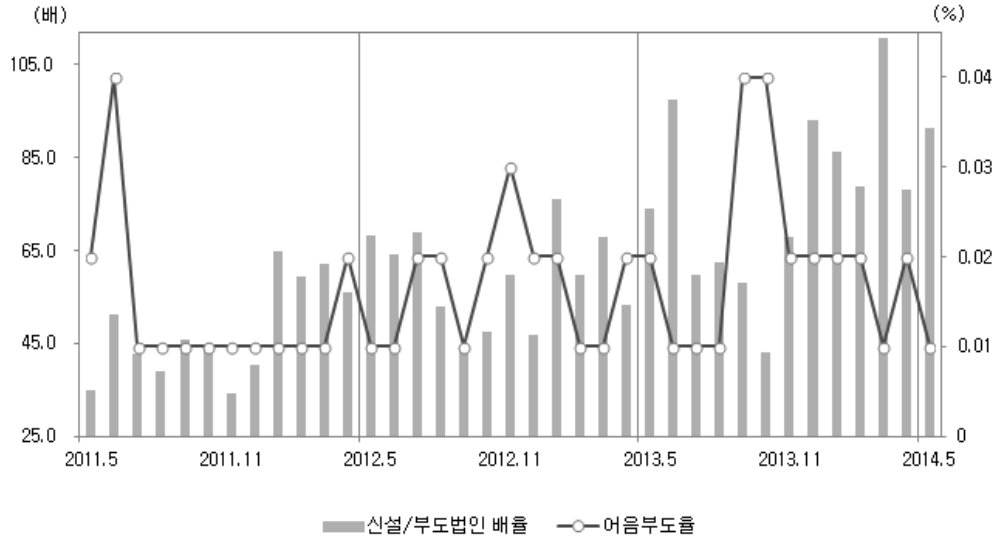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5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91.4으로 전월 (78.0배)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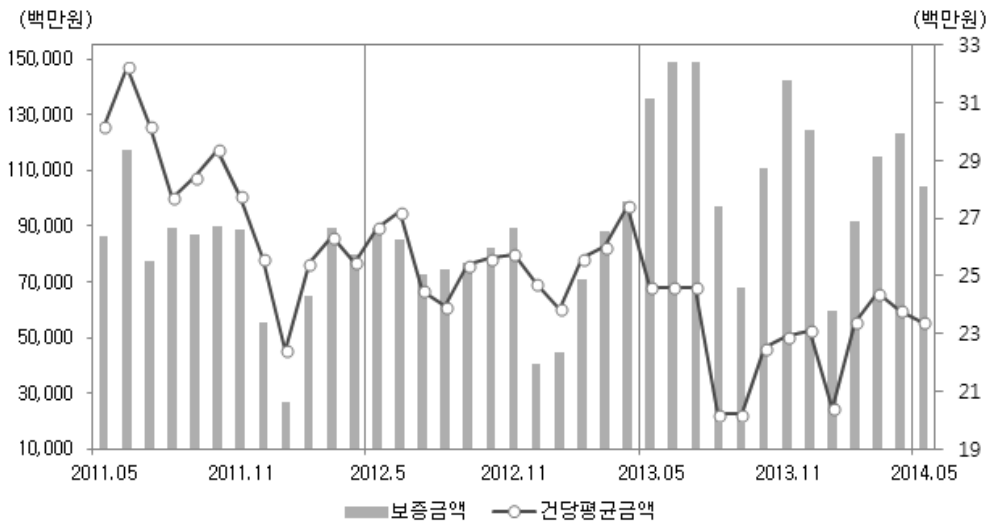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 서울의 5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104,220백만원, 4,457건
 -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전월대비 각각 15.6%, 14.0% 감소,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7% 감소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23.3%, 19.4% 감소하였고,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4.9%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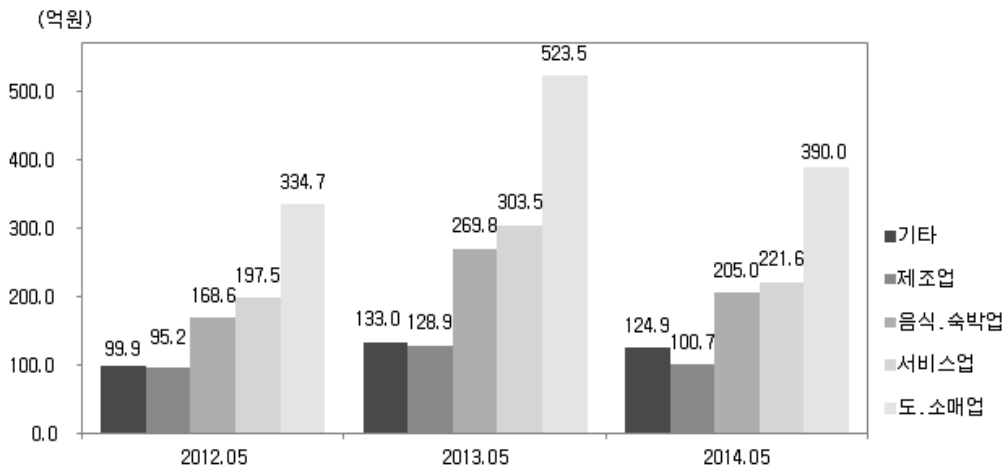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서울의 5월 제조업종 보증지원 비중 전월대비 증가

- 5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9.7%로 전월(8.0%) 대비 1.7%p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7.4%로 전월대비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7.5%로 전월(6.8%)대비 0.8%p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5.8%로 전월(34.6%)대비 1.2%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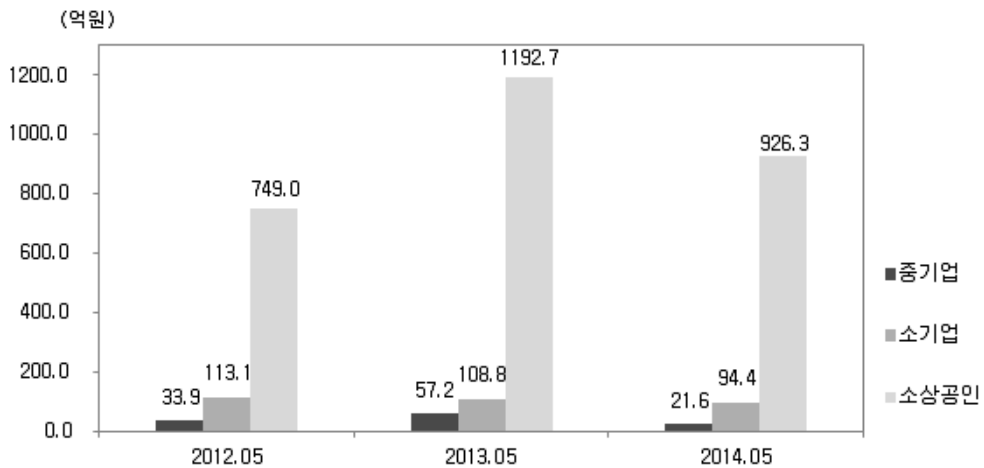
■ 서울의 5월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감소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8.9%로 전월대비 0.6%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96.3%로 전월대비 0.3%p 증가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9.1%로 전월대비 0.5%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3.1%로 전월대비 0.2%p 감소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2.1%로 전월대비 0.1%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0.5%로 전월대비 0.2%p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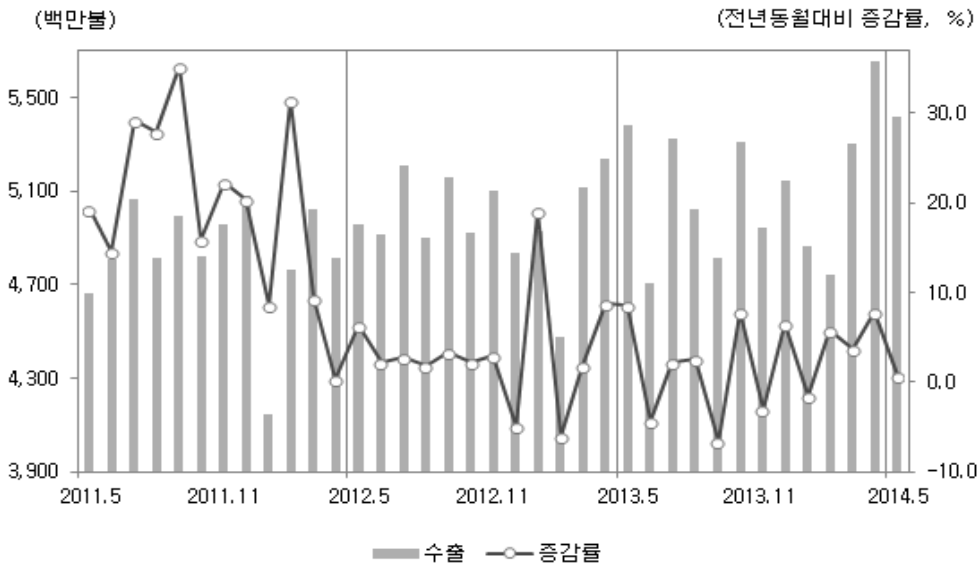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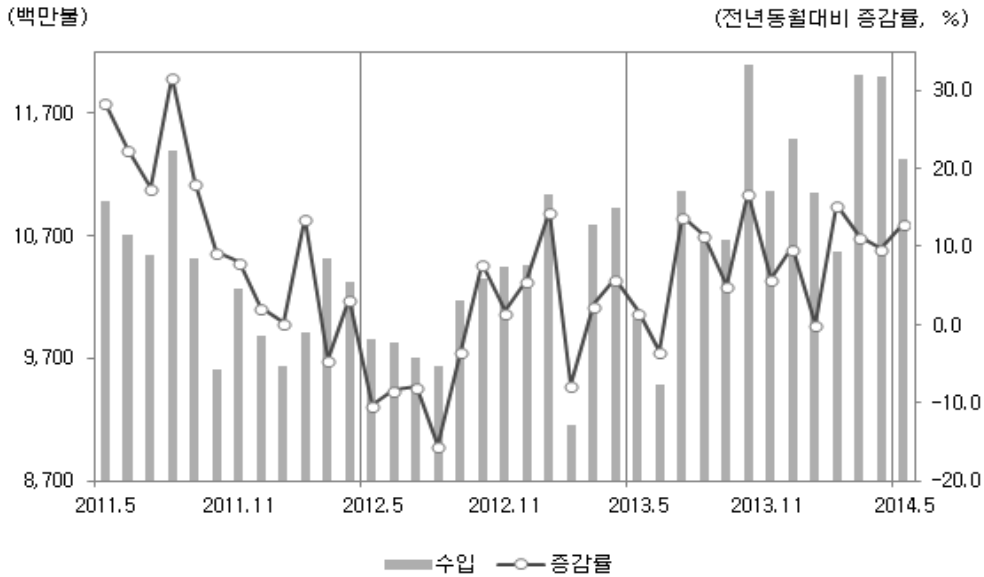
- 서울의 5월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54.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하였고 수입은 113.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3.0%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76.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하였고 수입은 425.2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서울의 5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573백만 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반도체,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1,142백만 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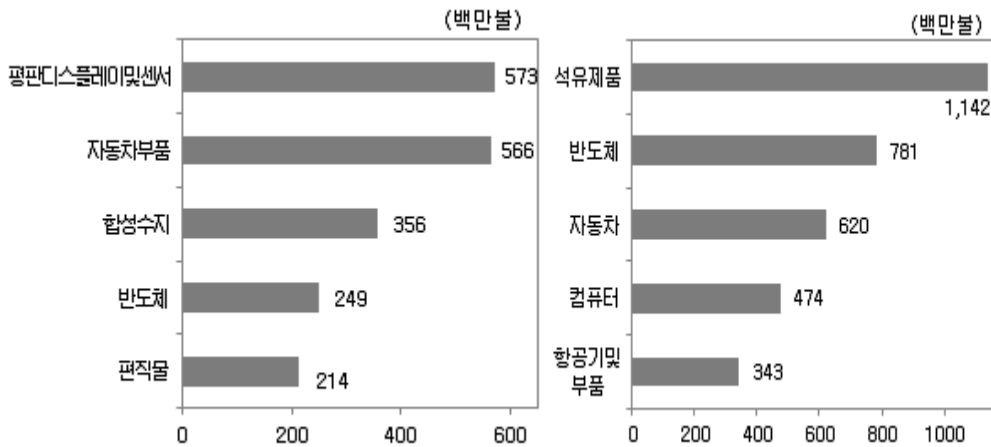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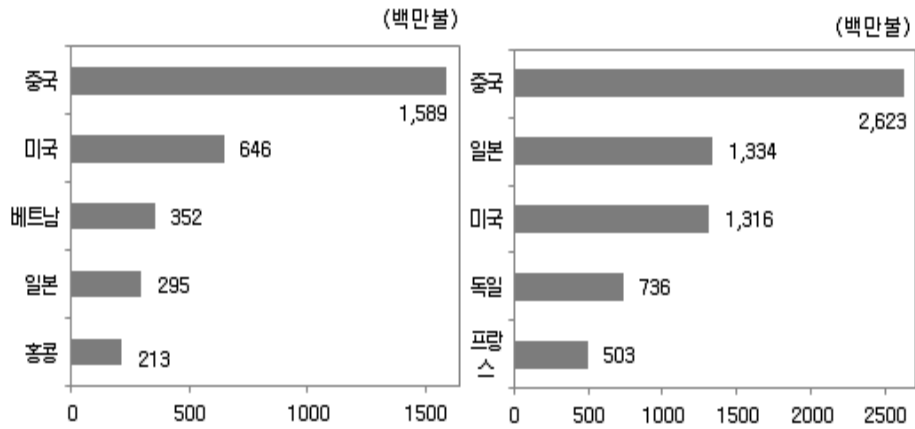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5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5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5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한 1,589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7.8% 증가한 2,623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순



자료 : 무역협회

〈그림〉 5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5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 자 · 료 · 출 · 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5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5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관세청, 「2014년 5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국민은행연구소, 「2014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114, 「2014년 5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중소기업청, 「2014년 5월 중 신설법인 동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통계청, 「2014년 5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4년 5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4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2014년 5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2014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